

월간 가든인 12월호

December 2015

Gardenin

특집
기사

"꿈결같은 세상" 정원은 진화중

GARDENIN LIFE
12
VOL. 32

Gardenin Maintenance

겨울을 위한 정원관리
커뮤니티가든 풀무학과 전공부

Gardenin Plants

정원 속 보이네
그리워도 못보는 "꽃유룻" 석산//이동혁

Gardenin Design

서울정원박람회 초청작가 황혜정
Colour in the Garden
가든인 팀 '정원디자이너의 진화과정'

Gardenin Culture

영국의 정원수 용기재배/손관화
옛조상들의 정원 조성법/김홍렬



에키네체아 속(Genus Echinacea)



ISSN 2288-1719



한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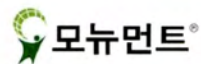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유럽의 주택정원 II

유럽의 주택 정원 II

유럽의 주택 정원 I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 다양한 잔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 등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침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신젠타에 표기처를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처를 표시한 이미지는 사용금지입니다. © 다른 기업이 있는 곳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신젠타의 모든 상표 및 서비스 마크는 신젠타의 재산입니다.



전북 전주 "꿈결같은 세상" 봄의 정원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12월은 정원의 마무리를 하며 동시에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더 중요하다. 12월의 정원관리에 주요 리스트를 알아가며, 내면의 정원에서 우리가 맞이할 정원의 모습을 상상하며 곱씹어 성실한 정원사의 뜻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겨울 정원을 즐기는 뜻도 정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 4 12월 정원의 Best 식물
- 6 겨울을 위한 정원관리
- 10 정원사의 일기 / 김시웅
- 16 커뮤니티가든 풀무학교 전공부

Gardenin Plants

동절기는 정원의 식물이 잠을 자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원에 필요한 식물을 미리 준비하고 땅이 얼기 전에 식물을 구입하여 식재하는 일도 필요하다. 겨울기간 동안 식물연구와 디자인을 점검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계절별 정원의 구성을 사진으로 구별하며, 앞으로 관수문제도 고려하여 식재에 염두해야 한다.

- 20 정원 속 보이네 / 박공영
- 24 Special Issue - 2015년 정원식물 돌아보기 / 서준혁
- 32 관목시대
- 34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 38 그리워도 못보는 "꽃무릇" 석산 / 이동혁
- 42 크리스마스 Tree로 쓰는 호랑가시나무 / 이명호

Gardenin Design

정원디자이너를 소개하며 한계점을 느낌 때가 있지만, 황해정 작가의 "다연"과 다른 작품 안에서도 작가의 완숙미가 장소는 바뀌었지만 창의력이 진화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 이번 12월호에서는 정원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며 정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진화하여 가고 있음을 알리며, 크고 작은 공간을 넘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정원이란 공간에 모두가 관심과 열정을 다 한다면 ...

- 44 서울정원문화박람회 - 초청작가 황해정
- 50 Colour in the Garden - Yellow Flowers / 오도
- 54 가고시마, 야쿠시마 Trekking / 정수진
- 57 "꿈결같은 세상" 정원은 진화 중 / 정현경
- 62 가든인 팀 '정원디자이너의 진화과정'

Gardenin Culture

정원과 융합된 주변의 문화들의 정보를 모아 소개하며, 이곳의 정원의 주제와 정원사의 마음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정원문화에는 다양한 주제로 열거하지만 정원문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부의 상징을 표출하는 장소이며 계속 후손을 위해 진화하는 장소이기에 알아야 할 가치를 소개한다.

- 68 영국의 정원수 용기재배 / 손관화
- 72 옛 조상들의 정원 조성법 / 김홍렬
- 76 치유의 정원 - 이천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우정아
- 80 실내정원의 Craft - 크리스마스리스 / 우정아

Gardenin Information

- 81 유럽의 주택정원II / 문현주

남천 *Nandina domestica*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Rubraeulis Aurea*

12월 정원의 Best 식물

겨울 정원에 나아가 자주 정원의 움직임을 살피다 보면 12월 겨울 정원에서 반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푸르른 상록과 잎이 떨어진 후 보이는 독특한 모습의 탱자나무 줄기는 신이 만든 창조물임을 재발견한다. 그리고 아래 식물들은 이제 시장에서 쉽게 구입하며 겨울 정원에 함께 커피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라 가든인 독자에게 겨울 정원의 방문을 권유하고 싶다.

주목열매 *Taxus baccata*

주목나무(16세기 주목나무, Hampton Court Palace, UK)



호랑가시나무

원도호랑가시나무 *Ilex aquifolium 'Bacciflora'*베르게니아 *Bergenia cordifolia Purpurea*히말라야 바위취 베르게니아 *Bergenia 'Eroica'*꽃사과 crab apple / *Malus x robusta 'Red Sentinel'*탄생화/ 에린지움 *Eryngium*

봄 남천의 흰꽃피는 모습

크로커스 *Krokus violett*탕자나무 *Citrus trifoliata 'Flying Dragon'*관중 *Polystichum setiferum 'Foliosum Superbum Koye'*아이비 *Hedera helix 'Dyinnii'*

겨울을 위한 정원 관리



겨울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바라보는 나에게 겨울정원에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아래의 할 일들을 점검해줄 것과 특히 잔디와 겨울정원에 필요한 동절기 식물들과 구근의 식재 작업도 마무리 하였기를 바란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 정원을 거닐며 느낀 것은 마음에서 바로 스치는 말로 "정원의 완성은 조망"이란 것도 말하고 싶다.

정원일은 늘장 부릴 수 없다. 가을에 정원 작업을 해준다면 더 풍성한 정원 속의 성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12월을 맞이하며 동절기에 필요한 일을 끝마치거나 점검하는 시기이다. 정원을 몇 년 지켜본 정원사라면 현재의 볼 수 있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픔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봄을 위해 준비하고 새 생명들의 번식과 같은 장소의 정원이나 식재의 변화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창의적인 작업을 누리는 공간이다. 몇 가지 유용한 가든인 Tip을 준비하며 겨울 정원도 항상 꼼꼼히 돌보는 정원사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겨울		
		12	1	2
01	화단관리			
02	정원 디자인 관리			
03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04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05	조경 경관 디자인			
06	동절기 정원 관리 준비			
07	식물명 표찰 작업			
08	식재 선정 작업			
09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10	관수 공급			
11	충돌 관리 감독 (정원관리/마스크)			
12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13	월동준비			



구근 심는 모습



수선화와 튜울립의 혼식 식재후모습

겨울 정원의 화단 정리를 하며
몇 가지 고려할 주요포인트

▶ 색상을 준비하라.

여름철 시원한 정원의 화단을 원한다면 장식용 식물도 필요하다. 잎이 크고 화단의 조화를 이루어 더 좋은 효과를 이루는 식물이 필요하다. 잎이 크고, 녹색의 질감이 함께 조화를 주는 것을 고려하여 본다면 보다 격상된 정원의 디자인이 완성된다.

▶ 구근을 준비하라.

구근 작업 후 봄을 맞는 정원이 얼마나 눈부시게 봄을 알리는지는 눈 속의 올라오는 구근의 잎과 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겨울 기간 동안 구근 영양 덩어리가 땅속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가장 빠르게 화단에 꽃으로 등장하는 마술과도 같은 시간을 맞 본 사람은 가격이 비싸지만 봄의 생명력을 일찍 갖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 다른 식용구근도 다시 생각하라

Think bulbs-again.

마늘이나 shallots 과 같은 구근은 다음 여름에 수확하려면 심어두어야 한다. 1년내 정원에서 공급하는 키친 가든의 작업도 잊어서 안 된다.



▶ 식물을 잘라주며 관리

가을이 되면 시원한 온도에서 보다 풍부한 영양을 보내주는 식물도 있다. 올해는 늦가을이 길어져 지며 개화를 두번 보는 식물도 많고 특히 튼튼한 경우 개화 후 절단 하여준 식물의 경우 꽃을 4-5회 계속적으로 피워주어 정원의 인기가 매우 높은 해이다. 한편 관목의 경우는 식물의 성장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기는 휴면 상태인 것이다. 11월 중순까지 계속 싱그러운 정원을 즐기는 기쁨에 바쁘게 SNS로 넘치는 사진이 오고 가며 다양한 식물의 관찰에도 정원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속근류의 분할을 이용

올 한해 동안 넘치는 식재의 과정을 보고 분할을 생각하였다면 땅이 얼기 전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화단의 정리도 되며 잡초만 남치던 정원 공간에 새로운 성장의 터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정원사의 역할인지 봄에 풍성한 정원을 보면 알 수 있다. 분할의 경우 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흙을 털며 나누어서 이식하면 된다. 그리고 영양분과 멀칭을 하여 보온을 준다면 건강하게 겨울동안 뿌리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속근 분할식물: 튼튼, 후박스, 국화, 구절초, 해국, 충충이꽃, 데이지종류, 속근 사루비아, 옥잠화, 우단동자, 고리꽃, 야기밀라, 세덤류, 붓꽃류, 그라스류 등등

종자로 번식한: 다기탈리스, 매발톱, 우단동자 등등 잘라주며 관리

정원의 청소와 관리

▶ 나뭇잎을 깨끗이 쓸어주기

나뭇잎을 모아 쓸어주어야 잔디가 호흡을 할 수 있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빛을 받아서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나뭇잎은 화단의 멀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보온 역할도 한다.

▶ 정원 마당을 청소하기

정원에 떨어진 과실이나 죽은 일년생, 다년생 식물을 자르거나 뽑아주어 깨끗하게 청소하며 이렇게 청소한 듯 정리하는 것이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며 봄에 건강한 화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의 도구도 깨끗이 닦아 정리한다.

▶ 몇가지 식물들은 잎이 남겨진 상태 유지

몇 가지 식물들은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원의 볼 거리를 매력적으로 풍긴다. 세덤류, 에키네시아의 종자 열매, 국화, 수국의 둥근 꽃 모양이 겨울 정원의 장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이번 겨울 관찰해 보자.



목수국 겨울 나기



나뭇잎 청소는 수시로

▶ 퇴비 준비

유기물 비료를 만들기 위해 낙엽이나 식물의 쓰레기를 모아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 퇴비에는 고기 유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엌에서 나오는 채소의 쓰레기도 사용할 수 있다.

▶ 연못 관리

연못에 떨어진 낙엽을 제거하고 실내 펌프 장치 등도 검토를 하며, 20~50%의 물은 빼주어야 한다. 그리고 녹색류의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한다.

▶ 다음해의 정원의 풍성함을 위한 준비

정원을 가꾸느라 바빠서 정원 용품이나 도구 등의 관찰을 하지 못했다면 상세히 관찰하여 다음해의 정원의 성장을 위한 도구나 필수용품에 대한 준비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한다. 물 호스도 물을 빼어 보관하고 야외 가구 등도 겨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리 배치를 하여 보관한다.

▶ 여름구근 저장

여름 구근의 보관은 병해를 입지 않도록 건조를 잘 한 것을 확인하고 종이를 두겹하여 두툼히 쌓아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며, 차갑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한다.

▶ 종자 보관 및 관리

여름부터 계속하여 종자를 수집하여 잘 건조하였다고 방치하면 종자의 발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씨앗 수집후 보관은 건조한 유리병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며 라벨을 기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백강나무속 종엽



에키네시아 종자열매 겨울 모습



잔디관리

▶ 잔디의 통풍 관리

봄에 관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겨울기간 햇빛의 양도 적고 곰팡이와 녹색 병충해도 생기기 쉬우니 관리에 신경쓰기를 바란다.

▶ 퇴비를 뿌려주기

겨울이 들어서면서 퇴비를 뿌려주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도록 돕는다. 특히 가을비와 눈은 유익한 미생물 활동을 위해 도움이 크며, 퇴비를 뿌려주면 토양의 질도 높이며 봄에 좋은 잔디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 상처 입은 잔디 바꾸어주기

벗겨진 잔디나 잡초로 죽은 잔디 부분은 새로운 잔디로 바꾸어준다. 추운 계절에는 더욱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잔디의 뿌리 번식에 좋은 계절이다. 혹은 씨앗을 뿌려서 벗겨진 잔디를 새롭게



모과나무



올해 식재된 모과나무의 병해 방지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정원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잔디에 씨앗을 뿌릴 경우 가볍게 땅의 표면을 자극하면서 수분을 공급하여 추면 줄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민들레 같이 뿌리가 깊은 잡초는 캐내며 바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클로버 같은 잡초도 바로 캐내어야 다음 해 깨끗한 잔디를 볼 수 있다. 가벼운 잡초가 많은 경우 가을 제초제를 뿌리면 불가지도 쉽게 잡초제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비료부리기

좋은 유기물 비료를 주는 것은 겨울 잔디를 강하게 하여 봄에 윤기있는 건강한 잔디를 볼 수 있다. 가까운 가든센터를 방문하여 유용한 비료를 선택하고 경험자의 도움도 얻도록 한다.

겨울 정원의 준비

▶ 나무줄기를 감싸주며 태양열의 방지효과

겨울동안 가뭄시기에 강한 빛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겨울의 태양과 밤의 저온의 온도 차가 크면서 껍질부분이 찢는 피해 방지를 하는 것이다. 껍질이 찢어지면 병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우리 나라에서는 짐으로 된 월동방지용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며 통기성도 좋고 장식 용으로도 정원수에 겨울 옷을 입히는 느낌이라 좋다. 봄이 되면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제거하면 된다. 가끔 비닐을 덮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통풍이 안되고 건조로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으니 고려해야 한다.

▶ 수분의 공급 검토

상록수는 겨울에 건조로 매우 취약한 식물이므로 겨울 급수가 필요한 경우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수분유지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삼베를 이층으로 둘러싸아주는 경우도 있다.

▶ 장미 관목 보호

장미는 가격도 비싸 잘게 자른 나무나 나뭇잎으로 멀칭을 두껍게 해주면 동절기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 봄 제거한다. 멀칭은 토양의 온도 유지와 겨울 동안 열과 녹으며 토양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여 주로 식물의 성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준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정원의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II

보송보송 털이 많은 씨앗

보송보송 털이 많은 씨앗에는 당근, 쑥갓, 상추가 있다.
당근처럼 씨앗에 작고 단단한 털이 돌아 있기도 하고, 꽃이 피었다
진 뒤 씨앗 끝에 털이 달리기도 한다.

당근

학명 : *Daucus carota* L. var. *sativa* DC

과 : 산형과 원산지 : 아프가니스탄

씨앗 수명 : 3년

>> 재배력

파종	수확	저장	심기	개화	채종	갈무리
4월 초	4월 초~5월 초	5월 초	6월 초	7월 중	7월 말	



① 11. 28. 가을에 수확한 당근. 잎을 자르고 땅속에 저장한다.



② 05. 02. 이듬해 봄 온실에 심어 자라는 당근.

>> 재배

검은 흙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주황색 당근의 아름다움은 맑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 당근 잎은 깃털 모양으로 가늘게 갈라져 텃밭에 찾아든 조용한 바람결에도 하늘거린다.

당근은 비타민 A를 비롯하여 카로틴, 철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영양 가치가 뛰어나다. 주황색은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당근 잎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잎에도 비타민과 칼슘이 많으며

식용 가능하다. 당근은 보통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재배를 한다. 물이 잘 빠지고 모래가 많은 밭에서 잘 자라며 온도는 섭씨 18~20도가 적당하다. 당근은 씨앗을 많이 맺는 편이지만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수확하려고 하는 양보다 많은 양의 씨를 뿌려야 한다.

또 당근 씨는 잠자는 시간(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받고 난 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뿌려야 한다. 씨앗을 뿌린 후 흙은 얇게



③ 05. 25. 울창종양 흰 꽃들이 예쁘다.



④ 07. 29. 씨앗이 여물면 가위로 자른 후 말린다.

덮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좋다. 그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물을 주고 흙이 수분을 유지하도록 부엽토나 볏짚, 팽연왕겨 등으로 흙 덮개를 해준다. 또는 골을 타고 물을 준 후 씨앗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싹이 잘 나고 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다. 본잎이 두 장이 되면 하나 걸러 하나씩 뽑아 솥아주고, 본잎이 세 장에서 다섯장일 때 두 개 걸러 하나씩 솥아준다. 본잎이 일곱에서 여덟 장일 때 솥아 주기를 끝낸다. 7~8cm에 하나씩 남겨두면 된다.

가을 재배의 경우는 감자를 수확한 후에 심으면 좋다. 감자밭은 퇴비를 많이 넣고, 수확을 할 때도 깊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밭 만들기

도 편 하다. 흙을 파낸 상태에서 그대로 두둑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면 된다.

당근은 뿌리채소로 대부분의 뿌리채소가 그렇듯이 옮겨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땅에 씨를 뿌린 다. 솥아낸 모종을 다시 옮겨 심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뿌리채소들은 옮겨심기를 하면 울퉁불퉁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된다.

>> 채종

순백색의 작은 송이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피는 당근 꽃은 보기에 예쁘지만, 씨앗도 많이 맺는 효자 작물이기도 하다. 당근 꽃의 꽃가루는 곤충들이 옮겨주기 때문에 품종 사이에 꽃가루가 쉽게 섞일 우려가 있다.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여름에 씨를 뿌리고, 수확할 시기가 되면 당근 표면이 매끄럽고 색이 예쁘며, 머리 부분이 평평해서 보기에 좋은 당근을 선별한다. 선별한 후에는 머리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잎을 따내고, 30센티미터 길이로 땅을 판 다음에 당근을 묻는다. 땅속에 묻을 때는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온실에 뿌리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묻는 것이 좋다. 노지에 묻을 때는 빗길이나 포장 등으로 윗부분을 덮어 최대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추위에 강한 품종의 경우는 가을에 당근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 남겨 놓고, 두껍게 볏짚을 덮어 겨울을 나게 한다. 겨울이면 눈에 덮여 오히려 단맛이 많이 나기도 하고, 당근이 좀 작아도 꽃대가 튼실하게 올라와 오히려 더 많은 꽃을 피우기도 한다.

땅에 묻었던 당근을 늦서리 걱정이 없어질 즈음에 꺼내서 밭에 심어 두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꽃을 피운다. 당근 꽃은 하얗고 무척 아름답다. 여러 대의 줄기 위에 작은 꽃들이 달리는데, 꽃대발의 지름은 10cm 정도다.

씨앗이 여물기 시작하면 가늘지만 통통한 씨앗들이 꽃 한 송이에 하나씩 맺히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지주를 해주는 것이 좋다. 씨앗이 여물기 시작하는 시기가 장마 때인 만큼, 씨앗 수확기에 비가 많을 때는 빨리 꽃대를 잘라서 실내에서 말리거나 우산 모양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꽃대의 가장 위와 그 다음 가지에 핀 꽃에서 좋은 씨앗이 맺힌다. 씨앗 양이 충분하다 싶으면 이 가지들만 잘라내서 씨앗을 받거나, 씨앗이 여물기 전에 아랫부분의 꽃눈들을 따내준다. 밭에 너무 오래 두면 씨앗이 여무는 동시에 땅으로 떨어져 운이 좋으면 씨를 뿌리는 수고 없이도 당근을 수확할 수 있다. 품종 간의 간격은 500미터를 둔다. 5~6월이 되면 흰색꽃이 문쳐 피어 다발 모양이 된다.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씨앗이 여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해주는 것이 좋다.

당근 씨앗 주변에는 표쵸표쵸한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다. 판매용 씨앗은 기계로 거친 부분을 다 털어내 깨끗하다. 하지만 집에서 채종한 씨앗은 거친 그대로다. 그 거친 부분 덕분에 당근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상추

학명 : *Lactuca sativa* L.

과 : 국화과 원산지 : 유럽·서아시아

씨앗 수명 : 1년

>> 재배력

파종	심기	개화	채종	갈무리
4월 초	4월 말	7월 초	8월 초	8월 중



① 05. 02 어린 모종.



② 06. 22 6월이 되면 꽃망울이 올라온다.



③ 07. 04 노란 꽃이 피었다.



④ 08. 09 꽃이 지면 그 자리에 털이 달리고 씨앗이 여물기 시작한다.

>> 재배

상추는 먹이에도 좋지만 보기에도 예쁘다. 연한 녹색에서부터 짙은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의 잎으로 텃밭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뿌리 내림도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 베란다나 창가에 놓아두어도 된다.

상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더위에는 약하다. 생육 적온은 월 평균 온도 기준으로 섭씨 15~20도이며, 결구에는 10~16도 가 적당하다. 생육 기간 중 온도가 높아지면 꽃대가 올라오고, 쓴 맛이 늘어나며 생리적 장애 등 여러가지 병에 걸리기 쉽다.

상추는 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 품종에 따라서는 한 포기에서 잎을 여러 번 따 먹을 수 있지만 다소 관리가 필요하다. 잎이 난 다음부터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거나 양분을 많이 주면 잎이 뻗뻗해져서 맛이 떨어진다. 부엽토나 유기질 거름을 섞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흔히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고 하는데, 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즙액 때문이다. 즙액에 락투세린과 락투신이 들어 있어 진통과 최면 효과가 있다. 상추에 잎을 갈아 먹는 별레가 생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상추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빈혈 환자에게 좋다.

>> 채종

상추는 자가수분 하지만 드물게 자연교잡도 일어난다. 같은 시기에 다른 품종의 꽃이 피어 있을 경우는 2~3미터의 거리를 두거나 혹은 품종과 품종 사이에 키가 큰 다른 작물을 사이에 심으면 교잡율을 0% 가까이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앗이 여물기 시작할 때 장맛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 가림이 필요하다. 비를 가리려면 온실(비닐하우스)에 심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산 모양으로 임시 온실을 만들어 준다.

작고 노란 꽃이 모여서 피는데, 씨앗이 여물 즈음에는 노란 꽃이 지고 보송보송한 흰색 털이 올라오면서 끝이 보죽하고 납작하며 긴 타원형의 씨앗이 달린다. 옅은 회색과 갈색 씨앗들은 아주 가벼워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잎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모종이 자란 때부터 씨앗이 익을 때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날씨가 차츰 따뜻해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점차적으로 벌어 올라와 7~8월이 되어 씨앗이 여물 즈음에는 꽃대를 자르거나 포기째로 뽑아서 비 맛을 우려가 없는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줄기에서 필요한 양분이 계속 씨앗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덜 여물었던 씨앗들이 서서히 익는다.

결구 상추의 경우 수직으로 반이 되는 부분에 칼집을 내거나 잎을 따서 꽃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대가 결구 속에 둥글게 묻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문지른 후에 둥근 용기나 체에 넣고 살살 흔들면 가벼운 털이나 껍질 등이 위로 올라온다. 손으로 걸러 내거나 입으로 불어서 날려도 좋고, 작은 키나 체를 이용하면 깨끗한 씨앗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한 포기에서는 6만개의 종자를 얻을 수 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서서히 꽃대가 길어지는 상추. 꽃이 필 즈음에는 꽃대가 1미터 이상으로 자라고 작고 귀여운 노란 꽃이 많이 달린다.

쑥갓

학명 : *Chrysanthemum coronarium* L.

과 : 국화과 원산지 : 지중해 연안

씨앗 수명 : 3년

>> 재배력

파종	심기	개화	채종	갈무리
3월 말~9월	5월 초	6월 중	7월 중	7월 말

>> 재배

청록색의 잎과 노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을 가진 쑥갓은 화단에도 어울리는 채소다. 봄에 약간 추위가 있을 때는 3월 말 그리고 가을에는 너무 춥지 않을 때인 9월에 씨앗을 뿌리면 거의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모종을 분발에 아주심기 하고 나면 5월부터는 잎을 따서 먹을 수 있고, 6월 중순부터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온대성 기후를 좋아하지만, 더위에도 강한 편이어서 노지에 심을 경우는 8월에도 수확이 가능하다.

>> 채종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수확이 가능한 쑥갓은 봄에는 약간의 추위가 남아 있을 때, 가을에는 너무 춥지 않을 때에 씨앗을 뿌린다. 자라는



① 06. 24 쑥갓꽃은 노란 국화를 닮았다.



② 07. 02 씨앗이 여문 것부터 잘라 말린다.



③ 07. 02 꽃잎이 마르면 송평량이처럼 변한다.

속도가 빠르게 물을 충분히 주면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하다. 국화과에 속하는 만큼 잎과 꽃이 일반적인 국화와 많이 닮았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6월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도 잎을 따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날이 더워지는 7~8월이 되면 줄기와 잎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잎을 먹기보다는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한 포기에서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다. 꽃이 지고 나면 검게 변하면서 씨앗이 여문다. 꽃 한 송이에서 200여개의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며, 씨앗이 여물기 전의 꽃은 먹을 수도 있어 유용하다.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명성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

특 성

1. 아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2.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해에는 일년생 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4.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법면 3호, 4호)



금호아파트



래데나



울산 태화강



에코랜드



마천리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7기' 현장



12강, 실내정원조성 실습시간

과정 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8월 26~11월 25일(매주 수요일)총 14강 / 하반기 마감!!

* 2016년 상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강료: 25만원(총 65만원 중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 소개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

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일정	강의내용	교수명
제 1강	08월 26일	식물환경	박광영
제 2강	09월 02일	체소정원조성	조남철
제 3강	09월 09일	정원이해	서수현
제 4강	09월 16일	정원계획설계	서수현
제 5강	09월 23일	아생화종류	박광영
제 6강	09월 30일	식재관수	김광두
제 7강	10월 07일	정원답사	김영재
제 8강	10월 14일	병해충관리	이종범
제 9강	10월 21일	수목종류	김광두
제 10강	10월 28일	실외정원	박광영
제 11강	11월 04일	수목전정	김광두
제 12강	11월 11일	실내정원조성	왕금옥
제 13강	11월 18일	비배찬디	김광두
제 14강	11월 25일	식물번식	박광영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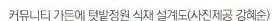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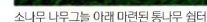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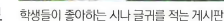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보더화단(Border Garden)



다양한 꽃들이 어울려 만들어 내는 보더화단(Border Garden)

2001년 개교한 풀무학교 전경부는 2003년부터 원예수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만들고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식당 등의 건물이 들어선 이외의 파투리 땅에 텃밭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꽃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보더화단(Border Garden)을 만들기도 했다. 교무실 옆에는 차나 약이 되는 허브 가든을 만들고, 잔디밭 너머로는 화목류와 키가 큰 나무 그리고 파 아래 어나는 야생화를 심어 계절정원을 만들기도 했다.

2015년에는 150여명의 공간에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었다. 마을사업으로 진행된 '보행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된 뽕마루교 전광부 부지에 꽃과 채소, 과일나무 그리고 음식식물을 심어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나 마을분들에게 정원문화를 전달하는 것이다. 정원의 구성은 텃밭정원과 과수정원, 꽃정원, 그늘정원 등의 주제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원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커뮤니티 가든의 입구에는 원두막과 테이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습지로 만들어져 원두막의 벽을 막아 전광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시 및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농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농부와 인문, 한국 근현대사, 농업과 기술, 논농사, 밭농사, 종곡, 녹색식산, 임상역사, 미술, 농업과 마생물, 재배 계획 등이 오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만 여평의 농장에서 논, 밭 실습과 원예, 농업기술, 축산 등의 실습을 한다. 밭 5천평, 논 5천평의 실습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식재료로 충당이 되며, 남은 쌀과 채소는 매달 정기간을 해 주되는 분들과 풀무원생각학교협동조합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정원 관리는 전공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정원을 가꾸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 혹은 외부에서 정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의 장소가 되면 좋겠다.

다양한 정원의 형태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꽃이나 채소를 이용한 디자인을 해 보고 심을 수도 있고, 수확한 꽃이나 채소, 과일 등을 이용해 원예수업이나 요리수업 등과 연계한 교육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커뮤니티 가든에서 채소를 심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강혜순)



커뮤니티 가든 앞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 방문하는 사람의 쉼터가 된다



커뮤니티 가든의 텃밭정원이 무르익었을 때



진딧물을 예방해 주는 한련화와 말기가 같이 자라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공간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풀무학교 전공부의 정원은 농업과 정원이 만나서 행복한 삶의 문화 터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 안에 커뮤니티 가든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커뮤니티 가든의 과수정원 식재 설계도



커뮤니티 가든의 과수정원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전광부 학생들(사진제공 강혜순)



토마토와 궁합이 잘 맞는 바질.



커뮤니티 가든의 음자정원 식재 설계도(사진제공 강혜순)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있을 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품종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쪽~핍니다!! 비료만 듬뿍!!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곱을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가우라 베이비리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참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텅커벨시리즈
아니 할~수, 할~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리빙스톤데이지 종자파종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색이 매우다양하다

화사한 햇살아래 빛나는

리빙스톤데이지 속

(Genus Deorotheanthus)

리빙스톤데이지 속은 다육성 다년생 식물의 10종의 속으로 남아프리카의 넓게 분포하는데 모래언덕이나 돌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1년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 앞은 마주 나거나 아긋나기로 통통한 선모양에서 수저모양이다. 작은 크리스탈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처럼 빛난다. 여름에 수많은 꽃을 피우는데 데이지처럼 생긴 흰색, 노란색, 오렌지색, 분홍색, 혹은 붉은 색 꽃이 핀다. 그러나 흐린 날에는 꽃이 옅어진다. 화단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기르거나 도로 포장의 틈을 메우거나 건조한 경사진 곳에서 기른다. 내한성이 약한 식물로 배수가 잘 되고, 가급적이면 비옥도가 낮고 햇빛이 잘 드는 모래토양에서 기른다. 개화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든 꽃을 제거한다. 증식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기온이 16~19℃의 사설에서 파종을 한다. 일반적으로 삼목도 잘되므로 증식은 매우 쉽다. 다만 삼목을 위해 지른 줄기는 2~3일 말려 꽃은 썩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는 묘목을 튼튼하게 하고 서리에 대한 위험이 모두 없어졌을 때 옮겨 심는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 진딧물, 달팽이 그리고 부패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단세럼(승엽국)과 벚꽃하



호주의 아생에서 자라는 모스



해가떠야 꽃을 피운다

음지와 물가의 귀족

관중 속 (Genus Dryopteris)

육지성의 양치식물의 200여 종의 속으로 주로 북미의 온대지역에서 발견되고, 개울이나 호수가 있는 삼림지에서 자라고 암석 사이에서 자란다.

대부분은 낙엽성이나 온화한 기후의 지역에 있는 몇 종은 상록성을 유지한다. 깃털모양에서 4개의 복엽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재배되는 종은 서늘곡모양이다. 초본식물과 관목식물들과 함께 있을 때 인상적인 일이 있으며,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온실에서 서리에 약한 종을 기른다. 우리나라에 많이 이용되는 관중은 약간의 습기와 부엽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 청나래고사리도 정원소재로 많이 이용된다.

대부분 완전한 내한성을 지내고 있으나 몇 종은 병해에 약한 종도 있다.

재배는 촉촉하고 부식토가 풍부한 토양에 반 그늘이 지거나 보호막이 있는 곳에서 기른다. *D. affinis*와 그 재배종은 다른 종들보다 태양과 바람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증식방법으로는 성숙하자마자 기온이 15℃일 때 포자를 상자 등에 뿌리거나 트레이에 뿌린다. *D. affinis*를 제외하고 재배종의 어린 식물은 부모와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봄이나 가을에 성숙된 식물을 분주하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으나 나방 모충이 포자를 먹을 수 있다.



관중의 겨울 잎



청나래고사리의 겨울 잎



관중

청나래고사리는 관중과 함께 정원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Matteuccia struthiopteris*

지피력 좋은 빨간 구슬 뱀딸기 속 (Genus Duchesnea)

생장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 다년생 식물의 6종의 속으로 동북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 속속하고 그늘이 진 삼림지와 개울가 근처에 산다. 5개의 꽃잎이 있는 꽃은 노란색이고 나중에 열리는 과실과 같은 딸기처럼 생겼으나 맛은 없다. 따뜻한 지역에서 포복경은 침해종이 되며 완전히 나누어진 3개의 장상의 눈에 확연히 보이는 엽맥이 있고, 톱니형, 딸기 잎처럼 생긴 잎은 유용한 지피 식물로 사용된다.

*D. indica*는 걸어두는 바구니에 실내용 화초로 기를 때 효율적이다. 특히 이들은 약간의 음지에도 잘 적응하므로 지피식물로 적합하다.

내한성은 뛰어나고 재배는 쉬운데 부식토가 많고 삼림지 같은 토양에 밝은 햇빛이나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을 선호하나 어떤 토양조건에서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봄에 냉상이 된 화분에 파종을 하거나 포기를 보리를 한 뒤 뿌리가 있는 묘목을 그해의 아무 때나 다시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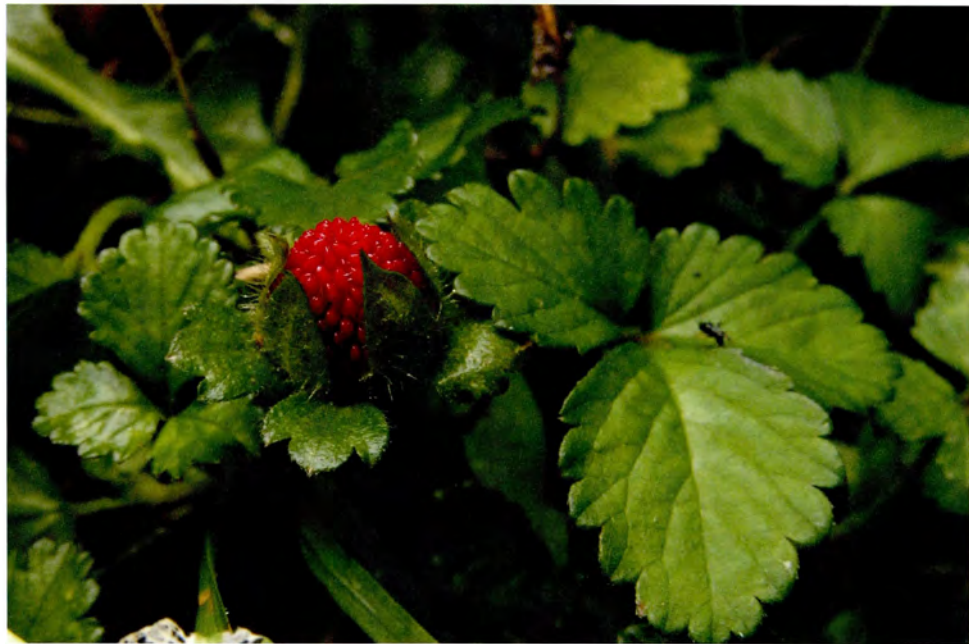
해충 및 질병 민달팽이와 달팽이에 의한 열매 피해를 볼 수 있다.



제주양자꽃과 비슷한데 사촌지간으로 보인된다.



뱀딸기



뱀딸기의 빨간 열매가 유혹 하지만 맛은 밍밍하다

거친듯 강한 아름다움.

에키네시아 속 (Genus Echinacea)

에키나세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사랑 받는 꽃이다.

다년생 식물 9종의 속으로, 중앙, 동, 북미의 건조한 대초원, 자갈이 많은 언덕, 그리고 넓은 삼림지에서 자라며 뿌리가 굵고 짧은 지하경을 가지고 있다. 털이 있는 줄기는 똑바로 서있고, 잎은 기다란 창모양에서 난형, 전연, 톱니형 혹은 깊게 깃털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강모가 많은 질은 녹색이다. 꽃은 핑크가 기본이지만 노랑, 하양, 빨강, 주황색 등 다양하다. 두상의 색은 초록, 갈색 혹은 노랑의 색을 가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옥수수 큰 모양으로 자란다. 보통 강한 가운데 줄기에서 먼저 꽃을 피우고 측지로 내려가며 꽃을 피우는데 매우 장기간 개화하게 되고 꽃이 진 줄기는 잘라내 주는 것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어 키가 낮은 분화용에서 키가 매우 큰 절화용 및 겹꽃까지 다양한 정원의 주요식물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 종의 경우 씨앗이 잘 발아되어 주변을 침범하는 강한 특징이 있으므로 되도록 씨앗을 맺지 않는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 국내 어디에서도 월동의 문제는 없다. 재배는 그늘이 약간 있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으나 밝은 햇빛이 있는 곳에 기른다. 토양은 깊고 배수가 잘 되어 부식토가 충분한 토양에 멀칭하고 재배한다.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줄기를 잘라준다.

증식은 봄 기온이 13℃ 이상 되면 파종을 한다. 좋은 품종은 봄 가을로 분주를 하여 증식하고 최소한의 뿌리를 남기게 되면 뿌리의 잘린 부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싹이 돌아나므로 많은 개체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자른 뿌리를 꺾꽂이 하면 많은 개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으나 나방에 의한 꽃의 식해와 응애와 온실가루이 등이 피해를 줄 수 있다.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정원에서 기르기 쉽고 아름다워 매우 사랑받는다.



1.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

이보다 더 좋은 정원식물이 있을까

올해도 역시 가우라의 선풍적인 인기는 여전했다. 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베이비시리즈는 더욱 소비자들의 손길,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인정원, 도로가, 화분 등 그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소재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어떤 꽃보다도 오래 꽃이 핀다는 장점과 아울러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하고 있다. 내년에는 또다른 새로운 품종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다른 가우라 품종의 비상을 기대해본다.



가우라베이비 골드트리가 무지개정원의 한 라인을 수놓고 있다.



강남구청 청사내 혼합식재된 가우라베이비 골드트리



피녹지에 왜성수크림과 혼성식재되어진 가우라베이비 핑크



박성원에도 잘 어울리는 소재



늘어오는 꽃들을 기대고 있어 더없이 밝아 보이는 식물들을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

Special Issue

2015년 정원식물 돌아보기

2015년도 한달 남짓 남은 지금,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원식물을 정리해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에 있었던 식물도 있고 새롭게 선보였던 식물 등 다양한 정원식물들이 현장을 다채롭게 채워주었다.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았던 품종들을 선별하여 사진과 함께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울정원발달위원회 출품된 정원식물속에 다양한 가우라품종이 혼성식재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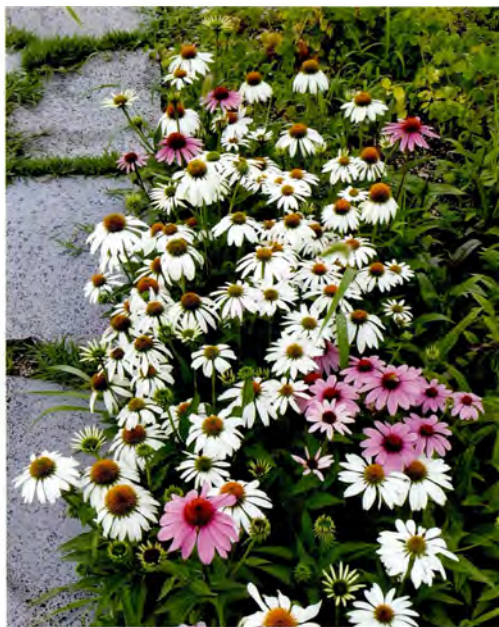
2. 에키나

고급스러움의 진수

에키나는 이제 정원식물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혼합 식재시 뒷줄식물로 좋고 또한 그라스와의 혼성식재에도 안정 맞춤의 소재이다. 특히 레인보우품종은 키가 작고 꽃색도 더욱 화려하여 그 쓰임새가 많은 품종이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품종들이 선을 보일 것이다.



색감이 아름다운 레인보우 품종



분홍과 하얀색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톱풀

수채화가 펼쳐진다.

봄의 끝자락 5월말경이면 정원에서 눈을 땔수 없게 만드는 꽃 중의 하나가 톱풀이다. 이제 대중화되어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있는 정원식물이다. 빨간색의 화려함, 노란색의 정갈함,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움. 품종마다 제각각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1차개화후 반드시 꽃대를 잘라주어야 정갈하고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운 풍경을 연출한다.



강렬한 붉은색의 톱풀 비단

4. 하늘국화 금방석

노란물결이 넘실넘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잎의 색깔으로 시선을 모은 품종이다. 도로변 등에 군식해도 좋고 디스플레이시 앞라인식물이나 혼합식재에도 색감이 좋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잎의 색이 눈에 잘 띄어 포인트용으로도 좋은 소재이고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해준다.



가성비가 합당하고 아름다움에 있는 노란물결 금방석



도로화단의 앞줄식물로 좋은 소재

5. 꽃잔디

봄을 부르는 꽃잔치

꽃잔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흔한 소재이다. 하지만 다양한 꽃잔디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 곳은 흔하지 않다. 단순하게 분홍색, 진분홍색 등 한 색상으로 조성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올해 선보인 꽃잔디정원은 다양한 품종으로 디자인하여 한 층 꽃잔디의 가치를 올려놓은 한해였다. 꽃잔디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남산공원의 꽃잔디와 숙근초와의 혼성식재 정원



산청조각공원 꽃잔디정원



다양한 꽃잔디품종 간의 앙상블

6. 코레우리

정말 아름다운 꽃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품종으로 올 최고의 한해를 보낸 정원식물이다. 다양한 품종이 있어 일단 꽃색, 꽃의 크기, 식물의 형태 등등 그 쓰임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되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원식물이다. 정원용, 분화용 등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더 좋은 품종들이 선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코레우리 전시포장



아스타, 하늘국화와 함께하는 다양한 코레우리 품종



북서울공의 숲 옥상정원의 코레우리 미리



한강 무지개정원에 펼쳐진 우리드림시리즈



동굴동굴한 식물의 형태만으로도 아름다운 품종



동굴동굴한 식물의 형태만으로도 아름다운 품종

7. 붓데레야

나비야 어서오너라

꽃이 아름다운 정원용 관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비들이 좋아하여 꽃주변으로 잘 모인다. 대부분 키가 큰 품종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제 정원에 더욱 안정맞춤인 왜성종이 보급되었고 또한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그 활용도가 높아질 관목으로 주목해 볼만하다.



8. 상록잔디패랭이

대한민국 대표 패랭이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년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는 패랭이품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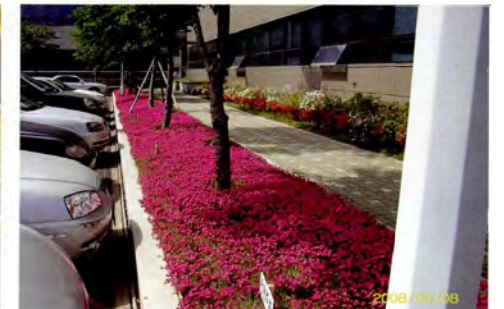
올해도 여전히 상록잔디패랭이는 정원의 앞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분화용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석, 상록잔디패랭이



유럽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



아시아나항공 본사 화단에 군식되어져 있다.

9. 튜립

봄이 왔어요!!

봄을 화사하게 단장해주는 튜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소재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올해도 여기저기서 튜립을 쉽게 감상할 수 있었다. 정원의 필수구근으로 정착되었고 지금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내년 봄을 맞이 위해 분주히 튜립식재가 진행중이다.



유럽의 튜립정원



한강공원의 튜립정원



여주아울렛 튜립정원



돌 아래 다른 식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호스타 품종들

10. 호스타

음지를 밝혀주는 밝은 미소

대표적인 음지의 고급소재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식물이다. 기존의 음지소재인 맥문동 등과 잘 어울리며 품종이 다양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종이 도입되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음지정원 뿐만아니라 양지에도 좋고 돌틈사이에 적용해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돌틈사이에 한포기, 한포기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무늬동굴레 아래 살포시 얼굴을 내미는 호스타

11. 그라스

그라스는 대세입니다!!

우리의 정사에도 잘 맞는 그라스류는 해가 갈수록 그 이용도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정원식물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무리지어 군식해도 좋고 포인트로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면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인다. 특히 가을정원에는 그라스만큼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식물이 많지 않다. 억새류, 수크령, 좀새풀, 물리니아 등등. 이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그라스종류가 국내에 선보일 것이다.



늦가을 정취를 흠뻑 안겨주는 억새 리틀제브라 군식지



위로 쪽쪽뽀는 무늬새의 기쁨이 느껴진다.



화분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식재된 억새 모닝라이트



아름다운 왜성수크령 하얀물결이 펼쳐지고 있다.



노란색 카펫, 대사초 골든팁

관목
시대

정원의 필수선택 인동덩굴(Lonicera)

인동덩굴은 대표적인 덩굴식물이다. 덩굴소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동덩굴은 매우 유용한 덩굴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하여 꽃색이 다른 종류와 잎의 색깔이 서로 다른 종류가 있어 기호에 맞게 잘 선택하여 적용한다면 경관적으로도 좋은 연출을 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다양한 인동덩굴품종과 그 이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품종을 활용하면 더욱 좋다.

인동덩굴은 클레마티스, 으름, 머루 등과 더불어 펜스녹화 또는 아치 등에 감아올리는 경계용 생울타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덩굴식물이다.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6~7월경에 꽃을 피는데 꽃은 처음 흰색으로 피었다가 차츰 금색으로 변해 "금은화"라고도 하는데 금색으로 변하기전 흰색이었을때가 향이 제일 좋다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푸른 잎이 달린채로 겨울을 나는 반상록성 나무이기도 한데 글자 그대로 춥고 긴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에서 인동덩굴이라고 불리어 진다.

붉은인동



적엽인동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종류로는 일반 인동덩굴과 붉은색 꽃을 피는 붉은인동,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인동이다. 하지만 인동덩굴도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있어 품종들을 잘 활용하면 덩굴식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잎의 형태와 색깔, 꽃의 형태, 화색 등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잎이 붉은색을 띄거나 노랑무늬가 들어있는 품종이 있고 화색에 따라서는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 등의 꽃을 피우는 품종이 있다. 꽃의 형태가 이색적인 품종도 있고 잎이 매우 조밀하게 형성되는 품종도 있다. 1가지 품종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따라서 이들 품종을 번갈아 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클레마티스 등 다른 덩굴식물들과 같이 식재해도 좋다.

황금색이 아름다운 인동 해오름

인동덩굴 품종중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올해부터 판매되고 있는 인동 해오름이라는 품종이다. 가든인에서도 소개했던 품종으로 잎이 황금색인 인동으로 일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매우 뛰어난 품종이다. 일반적으로 무늬종들이 생육이 약한 반면 인동 해오름은 강건하고 자람이 빨라 매우 피복이 빠른 경관적, 기능적으로 뛰어난 품종이다. 단지 너무 햇볕이 강한 곳에 있으면 엽색이 타는 경우가 있어 반음지의 벽면녹화에 이용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황금색의 잎이 매우 아름다워 나무아래 피복지 등의 지 피용으로도 활용가능하고 돌틈사이에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게 연출해도 잘 어울릴 수 있다. 특히 황금색잎은 주위를 밝게 해주어 주위가 어두운곳에 잘 활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황금색잎을 뽐내다가 가을에는 적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어 단풍 또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 그리고 겨울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반상록으로 월동을 할 수 있어 겨울의 삭막함을 채워줄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인동 품종이 출시됨에 따라 인동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품종을 한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인동 해오름



인동해오름은 아름다운 황금색 잎을 가지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빨갛게 물들고 있다.

돌 틈사이에 식재되어 가을 단풍이 서서히 들고 있는 모습



서봄과 정원식물 나들이



서 봄

장래 최고의 가든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꾸며 대한민국 하늘아래 폭풍성장중인 아이

상록의 아름다움 향나무류



향나무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품종을 소개해드릴게요. 대부분 눈향나무는 알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 생소한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비슷비슷하게 보일거고



제 키만큼 자란 블루애로우향입니다.

요. 향나무는 자라는 형태적인면이나 잎의 색깔에 따라서 많은 품종으로 나누어진답니다. 포복성으로 자라는 눈향계통으로는 바하브눈향과 잎이 작고 매우 조밀한 좁눈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잎이 아름다운 골드카펫향도 있고요. 땅을 기어서 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경사면, 돌메지용, 라인용으로 알맞은 소재입니다. 또한 겨울상록성이 필요한 곳에 직립성의 주목, 측백나무를 심고 눈향계통을 베이스로 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복성으로 자라는 듯하지만 자라면서 원줄기가 서서 자라는 종류로 골드스타향, 블루카펫향 등이 있는데요. 골드스타향은 황금색 잎의 질감이 뛰어난 향나무이고요, 골드카펫향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면서도 특히 끝부분에 새순이 오를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블루카펫향은 블루톤의 질감이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합니다. 위 품종들은 모두 잎의 질감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돌메지용, 암석가든용 그리고 도심의 피복지, 중앙분리대 등에 상록성을 원할 때 이러한 품종을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직립성으로 자라는 종류중에서 스카이크렛향이 대표적인데요, 정원의 포인트용으로 좋고 열식으로 울타리용 소재로 이용하면 더할나위 없이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루애로우향, 블루엔젤향 등이 있습니다.

상록성의 질감이 좋은 관목들은 그 쓰임새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낙엽수 사이에서 포인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생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종류들이 돌메지용, 암석가든용으로 최상의 소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피복지, 도로중앙분리대 등에 화양목 또는 철쭉 대신에 이러한 질감이 좋은 상록성 향나무 품종들을 군식하거나 혼합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면에서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다면 향나무들 사이사이에 톨립, 꽃백합 등의 구근을 이용하거나 중간중간에 붓데려야 같은 꽃이 좋은 관목을 섞어 조성하면 더욱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드카펫향 끝부분의 노란색 새순이 이쁘네요.



골드스타향-멋진데요

향나무류 관찰하기

◀ 이 정도 골드스타향 한포기면 효과 만점.



▲ 잎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골드카펫향



▲ 암석가든에 사이좋게 서있는 블루애로우향 심형제



▲ 블루카펫향을 어디에 한 번 사용해보실까?



▲ 돌틈사이 블루카펫향



▲ 돌을 살짝버릴듯한 골드스타향의 위용

코스모스의 새이름

초콜릿코스모스



- 달콤한 초콜릿향의 아름다운 꽃
- 5월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 분지력이 좋아 꽃수가 많다.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신품종 연구개발 및 로얄티 수출



본사/연구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마로 924번길 87 | T.031-634-7990 | F.031-634-7991
가든조아 T. 031-712-7009
벽화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 | T.055-962-7991 | F.055-962-7901



그리워도 못 보는 꽃 - '꽃무릇' 석산

석산은 무리지어 심기 좋은 야생화다.

석산(石蒜)이라는 한자명이 귀에 생소하게 들린다면 '돌마늘' 또는 '꽃무릇'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 예쁜 이름을 놔두고 왜 굳이 한자명으로 쓰는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정식 명칭은 석산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

석산은 오래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식물이다. 한국 자생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님의 장상을 물들이기 위한 염료로 쓰기 위해 절 주변에 심은 것이 번졌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 실제로 석산의 국내 최대 군락지는 전북 고창군의 선운사와 전남 영광군의 불갑사, 그리고 전남 함평군의 용천사로 모두 사찰 주변이다. 저절로 번지면서 큰 군락을 이뤘지만 현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더욱 많이 심고 있는 추세다.

10년 전쯤만 해도 선운산 매표소 입구 부근에는 혐악한 입간판이 관람객을 맞았다.

“석산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수시로 배낭 검사를 해서 적발되면 형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글귀가 크게 쓰인 간판이었다.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의 그 경고판은 어느 순간 모

석산(수선화과) *Lycoris radiata*

개화: 9~10월

높이: 30~50cm

분포: 중부 이남의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땅속에 넓은 타원형 또는 난형의 비늘줄기가 있고 겉껍질은 흑갈색이다.

▶ 잎은 선형이고 비늘줄기에서 모여 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이 진 후에 돋아나서 겨울을 보낸 뒤 여름에 말라 없어진다. 길이는 30~40cm, 폭은 0.6~0.8cm이다.

▶ 꽃은 9~10월에 나오는 꽃줄기 끝에 달리는 산형꽃차례에 5~10개가 붉은색으로 위를 향해 핀다. 지름은 10~15cm에 이른다. 화피는 6개이고 도파침형이며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고 뒤로 말린다. 수술은 6개이고 화피 밖으로 길게 나온다. 암술은 1개이다.

▶ 열매는 거의 맺지 않으나 열매에 같은 것이 달리기도 한다.



전남 함평군 용천사 경내의 석산 군락

두 사라졌다. 석산의 번식력이 워낙 강해 숲을 다 차지해버리다 보니 식물의 종 다양성을 해친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나 할까? 차라리 등산객들이 몇 개씩이라도 주워가는 행위가 그쪽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사실 선운산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에서는 아무렇게나 나뭇구리는 석산의 비늘줄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장마나 태풍이 와서 폭우로 땅을 파헤쳐 쓸어버리거나 하면 길가로도 나와 발에 밟히기도 한다. 그 정도로 많다. 석산이 그렇게 큰 군락으로 번지다 보니 다른 식물이 들어와 자랄 자리까지 모두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민폐가 아닐 수 없다. 비늘줄기에는 독성분이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도 없기에 동물들에게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석산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봐야 꽃 보기를 좋아 하는 관광객 아니면 주변 상인들이 고작이다.

아직도 간혹 석산을 상사화라고 소개한 안내판을 만날 때가 있다. 석산도 상사화처럼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잎이 없으니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식의 사연이 생겨날 법하다. 하지만 상사화랑은 분명 다르다. 꽃도 다르지만 잎부터도 다르다. 초가을에 꽃이 피었다 지고 나면 곧바로 잎이 바로 나기 시작해서 상록성 식물처럼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지내는 것이 석산의 특성이 다. 그래서 석산은 한번 심어놓으면 화려한 꽃이 진 후에도 눈 쌓인 쓸쓸한 겨울 정원에서 푸른 잎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듬해 봄이 지나도록 싱싱한 초록색 잎을 유지하다가 여름이 다가오면 다



석산의 비늘줄기



겨울을 보내고 봄까지 남은 석산의 잎



른 식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다 여름 지나 초가을로 접어들면 새빨간 폭죽을 손에 들고 나타나 그들만의 화려한 축제를 연다.

유사종 알아보기

석산을 가리켜 흔히 상사화라고 광고하지만 그건 아니다. 상사화는 엄연히 따로 있다. 상사화도 석산처럼 중국에서 들여온 관상화고 화단에 심기에 좋다. 연분홍색 꽃이 복사꽃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석산보다는 덜 화려해서 애뜻한 사연의 주인공다운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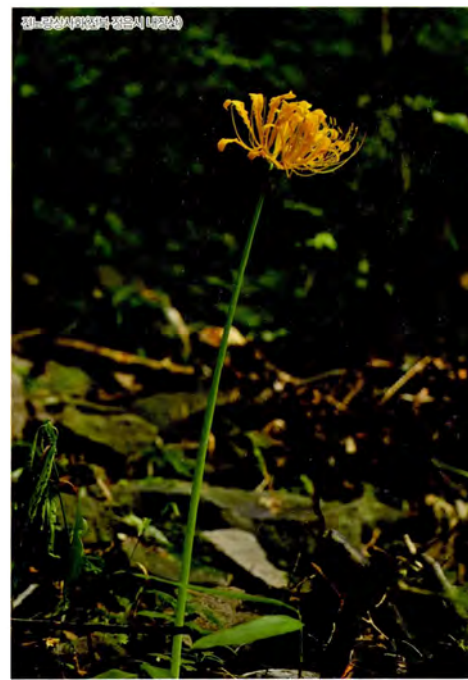
백양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백양꽃도 석산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다만, 꽃이 주황색이고 여름에 피며 겨울에는 잎이 없어졌다가 봄에 새로 돋는 점이 석산과 다르다.

진노랑상사화는 전라도 지역에서 자라며 화피가 주황색에 가까운 짙은 노란색이고 뒤로 말리는 점이 특징이다.

그에 비해 붉노랑상사화는 노란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꽃이 피는 점이 다르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제주상사화는 화피에 주름이 지지 않고 뒤로 거의 말리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전북 위도에서 자라는 위도상사화는 꽃이 연한 노란빛이 도는 흰색이어서 매우 아름답다. 위도에서는 위도상사화의 관상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대량으로 심어 관광 홍보용으로 이용한다.



심기와 관리하기

석산은 남부 지방에서 자라지만 중부 지방으로 옮겨 심어도 잘 자란다. 그래서 서울의 길상사 같은 곳에서도 석산의 군락을 감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석산을 빛을 좋아하는 야생화지만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다. 빛이 강하면서도 반그늘이 지는 곳에 심으면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다.

토양은 가리지 않는 편이며 20% 정도의 부엽토가 섞인 사질 양토에 심는다. 습기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편이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한다. 심한 가뭄이 아니라면 따로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개화기 때 너무 많이 주면 키가 너무 커져버려 휘어지거나 꺾여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번식은 뿌리나누기로 한다.



글·사진 : 이동혁
 핵이심춘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크리스마스 Tree로 쓰는 "호랑가시나무"

호랑이의 발톱을 닮은 잎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의 상록관목이며 '묘아자나무'라고도 불린다. 해변지역 낮은 산의 양지에서 자란다. 나무가 어려서 묘목일 때나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의 잎은 5개의 보폭한 톱니가 있어서 마치 호랑이의 발톱과도 같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서 나이를 먹으면 가장자리의 가시는 퇴화되고 하나의 가시만 남는다. 잎은 가죽질(革質)이고 표면에 윤채(潤彩)가 있으며 밑면 털은 없다. 잎은 6각형 형태로 각이 지거나 또는 둥글면서 잎의 일부가 보폭하게 돌출하여 가시처럼 변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과 열매의 특징

꽃은 4~5월에 피고 향기가 있으며 5~6개가 잎겨드랑이에 산형꽃차례로 달린다. 암술은 암술대가 없고 암술머리는 약간 높아져서 4개로 갈라지고 흑색으로 된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8~10mm이며 9~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품종에 따라서는 열매가 황색으로 익는 것도 있다. 종자는 4개씩 들어 있고 난형이다.

자생지별 생육 특징

수평적으로는 변산반도와 완도·제주도에서 자생하며, 표고 1,000m 이내의 저지대 산록 양지와 하천변에서 자란다.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도청리가 자생복합지로,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에 지장이 있으나 나무 그늘 밑이나 음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란다.

호랑가시나무의 용도

붉은 열매가 성숙할 때 성탄절 장식으로 사용하고 관상용으로 널리 이용된다. 호랑가시나무는 예로부터 크리스마스 Tree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약재로 사용한다. 잎은 약성이 평(平)하고 감(甘)하며, 거풍습(祛風濕)·양혈(涼血)·강상의 효능이 있어 요슬산통(腰膝酸痛)·풍습비통(風濕痺痛)·결핵성해소·질타손상 등에 치료제로 사용한다. 열매는 약성이 양(溫)하고 고(苦)하며 자음(滋陰)·강정(強精)·활혈(活血)의 효능이 있어 신체허약·양기부족·근골동통(筋骨疼痛)·질타손상 등에 치료제로 사용한다.

감탕나무과 식물의 분류

감탕나무과에는 호랑가시나무와 완도호랑가시, 감탕나무, 먼나무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높이 5m 정도로 자라고 가지가 무성하며 털이 없는



감탕나무 꽃



감탕나무 꽃



감탕나무 꽃봉오리



감탕나무 열매



감탕나무 열매



감탕나무 열매



먼나무 수꽃



먼나무 암꽃



먼나무 열매



먼나무 열매

것이 특징이다. 잎은 어긋나고 두껍고 윤기가 있으며 타원상 육각형이거나 둥근 것이 특징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교잡종으로서 처음에 완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가시나무보다는 키가 훨씬 커서 마치 교목처럼 보이기도 하며, 붉은 열매가 가을부터 봄까지 달려 있어 관상수로도 가치가 높다. 보통의 호랑가시나무는 높이가 2~3m인데 반해서 완도호랑가시나무는 5~8m 정도로 키가 큰 것도 뚜렷한 특징이다.

감탕나무와 먼나무의 특징

감탕나무는 이들을 대표하는 식명을 가진 나무이지만 먼나무와 더불어서 잎에 가시가 간혹 있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겨울에도 푸른 잎과 빨간 열매를 잔뜩 달고 있어서 관상 가치가 훌륭하다. 대략 키는 10m 정도로서 둥글게 자라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가로수로서도 제법 훌륭하다. 겨울철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 붉은 열매를 잔뜩 달고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먼나무들이다.

겨울에 더욱 사랑을 많이 받는 나무

이들은 대개 잎이 사철 푸르면서 잎의 일부가 가시로 변해 있기도 하며, 가을철에 붉게 변한 예쁜 열매가 겨울철 내내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꽃이 없는 겨울을 꽃 대신 장식하는 식물로 한몫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완도호랑가시



호랑가시나무 열매



먼나무 열매



먼나무 열매-미성숙



먼나무 잎



호랑가시나무 암꽃



호랑가시나무 수꽃



호랑가시나무 청열매



호랑가시나무 잎



호랑가시나무 열매



서울정원문화박람회

초청작가 황혜정

작품제목: 다연(차를 마시며 즐기다)

'다연'



작품요약 : 각박한 일상 그리고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유를 선사할 수 있는 서정적 공간을 찾고자 함. 영국에서 10년간 서양적 디자인을 접하고 창조하고 있지만 항상 맘속에서 이끄는 디자인의 모티브는 늘 동양의 미에서부터 온다...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디자인에 접목시키려 노력했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서양의 대칭적 디자인 레이아웃과 동양의 섬세한 디테일을 엮을 수 있는 디자인...

한국 전통 창살 무늬에 매력, 가을 단풍과 어울리는 꽃들과 조화, 그리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은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마음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워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이들에게 생명이 숨쉬는 공간, 피곤한 일상을 접고 돌아와 안식할 수 있는 그리고 순수한 기쁨과 평온함을 만끽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원하며.....



Profile

황혜정(HAY Joung Hwang)

■ 약력

- Sheffield University 조경학(landscape architect) 석사 졸업
- HAY(DSIGN LANDSCAPE ARCHITECTS) Director 디자인 컨설턴트/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조정/정원 설계

■ 소개

2014년 프랑스 쇼몽국제가든 페스티벌 한국인 최초 정원디자이너 당선
- "la Balance" 주제로 정원전시
- "7대 죄악"이란 공모주제에 선과 악의 균형있는 삶을 정원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한국의 넉넉기 전통소재로 활용한 정원디자인, 고요한 정원디자인 두명의 사람이 양쪽에서 넉넉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철학적인 정원디자인
Email: hay.joung@haydesigns.co.uk



정원 입구 : 정원을 기준으로 양옆의 화단에 다년생 꽃과 관목수를 배치하여 방문자들을 환영한다

단풍 나무 : 우리 동양인들에게 익숙한 단풍나무를 선정/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한번 와본곳 인 듯 친밀함을 느낄수 있도록 구상

정원 통로 : 정원의 입구에서 휴식 공간으로 연결된 화단은 다년생 꽃을 보는 즐거움을 증대하고자 함

다년생 꽃 : 우리에게 익숙한 다년생 꽃과 (해바라기/강아지풀/수크령 등), 서양에서 들어온 품종(가우라/휴케라)등의 익숙하지 않은 품종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좀더 다양한 다년생 꽃 장려하고자 함

반구형 사철나무 : 일년 내내 초록빛인 사철나무를 반구형 모양으로 전지/진정함
(서양에서는 이것을 토포리(Topary) 라고 하면 정원에 중요한 요소로 많이 쓰임)

휴식공간 : 정원의 앉는 공간을 마련/아늑함을 증대

조각품 : 변남석(돌 발란스 아티스트)님의 작품을 중앙에 위치/휴식공간의 중앙에 자리한 조각품의 이 정원의 키포인트로 정원과 아티스트의 작품이 융화를 이루는 장소

전통 창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정원 구조물 :

한국 전통 창살에 쓰인 밤나무 색/ 뒷면의 하얀색 합판 마무리로 우리 전통 창호문을 재현함.

정원 박람회 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있 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매년 정원 박람회를 열며 그 호응을 맞춰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너무도 많은 흥미로운 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원의 디자인의 무엇보다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식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빠진 정원은 이빨바진 호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key point plants

온시디움 *Oncidium* 노랑 / 체리 세이지 *Cherry Sage* 빨강 / 마타피아 *Jatropha Integerrima* / 몽블랑 / 메어리
 페어리스타(일년초) 중 / 페어리스타소 / 카라 *Calla lily yellow* / 운남 국화(초본류 야생화)
 빨간 잎 무궁화 - *Red Leaf Hibiscus* (*H. acetosella*)



식재

현재 정원에 쓰이게 된 식재들은 쇼정원 용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대부분의 식재들은 화훼 단지에서 구입하였으며 수시로 많은 관리가 필요한 식재들입니다.

식재 배치 중점요소 : 내추럴리스틱 플랜팅 디자인

내추럴 플랜팅 디자인이란?

영국에서 수년 전부터 많은 정원 디자이너들이 선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 배치 방식의 하나입니다. 내추럴 플랜팅 디자이너로 유명한 Piet Oudolf 에 영감을 얻음.

Colour Scheme으로 빨강/노랑 그리고 흰색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식재를 배치. 식재의 높낮이를 고려, 균형과 발란스를 맞추 작은 꽃 무우리가 있는 식재들을 배치, 그룹식보다는 꽃꽂이를 하듯 각가의 식물들의 색/재질/높이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http://thinkinggardens.co.uk/articles/naturalistic-planting-is-anything-but-by-michael-king/>

황혜정 작가의 해외 작품 및 정원디자인 작업

Chaumont France 2014년 프랑스 쇼몽국제가든 페스티벌 한국인 최초 정원디자인 당선



Cheyne Terrace, UK (코트야드가든 리모델링 작품)



Oak Hill, UK (개인정원)



Stratford, UK



The old garden, UK





노란색을 떠올리면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병아리의 털처럼 부드러운 느낌 등이 떠오른다. 노란색의 꽃들은 보통 이른 봄과 한여름에 많이 피어난다. 다른 색상에 비해 특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곤충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이른 봄부터 정원을 장식하면서 벌과 나비를 유인한다. 여름이면 해바라기를 비롯해 메리골드 등의 오래피는 꽃들이 빛을 받아 더욱 강렬하게 여름을 알리기도 한다. 노란색은 밝고 환하기 때문에 조금만 심어도 많이 보이고,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란색은 밝고 맑음과 진하고 탁함의 차이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이 다르다. 노란색 꽃들(Yellow Flowers)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화사하면서도 무게감과 멋스러움 그리고 중후함을 갖춘 정원을 연출 해 보자.

오도

풍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恵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캄페스트레단풍 '포스텔렌세'
Acer campestre 'Fosterlense'
단풍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2.5~3m



툼볼 '코로네이션 골드'
Thuja 'Coronation Gold'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4월, 10월 ↓ 1m



베르그마니아 매자
Berberis benjamina
매자나무과·상록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가시철엽수 '햄튼 코트 골드'
Aesculus hippocastanum 'Hampton Court Gold'
철엽수과·낙엽활엽교목
▶ 7월 수 3월, 10월 ↓ 30~40m



폴리페탈라 동의나물
Callia palustris var. *polypetala*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4~5월 수 4월, 10월 ↓ 50cm



루세니쿠스 비자루꽃
Chamaesyris ruthenica
공과·낙엽활엽소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80cm



오포시티폴리움? [아스토필럼]
Chiosaphyllum oppositifolium
들나무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20cm



에메루스 코로닐라
Coranilla emerus
공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50~150 cm



발렌티나 코로닐라
Coranilla valentina
공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80cm



고토아나히어리 '천리포'
Corylopsis glabrescens var. *gataana* 'Chollipo'
소목나무과·낙엽활엽관목
▶ 3~4월 수 3월, 10월 ↓ 2.5~4.5m



도로니움 '골드컷'
Doroicum 'Goldcut'
국화과·속근초
▶ 3~6월 수 3월, 10월 ↓ 30cm



린우드 개나리
Forsythia lynchwoodi
물푸레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3m



비리디시마 개나리
Forsythia viridissima
물푸레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3m



프리틸라리아 '루테아'
Fritillaria imperialis 'Lutea'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1m



프리틸라리아
Fritillaria imperialis
백합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1m



중국하이어리
Corylopsis sinensis var. *sinensis* 'Spring Purple'
조목나무과·낙엽활엽관목
▶ 3~4월 수 3월, 10월 ↓ 3~4m



페랄키움 삼지구엽초
Epimedium x peralchicum
매자나무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50cm



투롱넨세 얼레지
Erythronium fulgens
백합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30cm



인터메디아 개나리 '스프링 글로리'
Forsythia x intermedia 'Spring Glory'
물푸레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3m



라시안툴 할리미움
Halimium lasianthum
시스투스과·상록활엽관목
▶ 5~7월 수 3월, 10월 ↑ 1m



원추리 '코키'
Hemerocallis 'Corky'
백합과·속근초
▶ 5~6월 수 4월, 10월 ↑ 70cm



원추리 오크로레우카
Hemerocallis x ochroleuca
백합과·속근초
▶ 5~6월 수 4월, 10월 ↑ 1.2m



물레나물 '히드코트'
Hypericum 'Hidcote'
물레나물과·낙엽활엽관목
▶ 6~10월 4월, 10월 ↑ 80cm



목향
Inula helenium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4월, 10월 ↑ 2m



붓꽃 '마리 맥길로이'
Iris 'Mary McKillop'
붓꽃과·속근초
▶ 5월 수 3월, 10월 ↑ 35cm



황해화 '골든 기니'
Kerita japonica 'Golden Guinea'
장미과·낙엽활엽관목
▶ 5~6월 수 4월, 10월 ↑ 2m



아메리카누스 리시키톤
Lysichiton americanus
천남성과·속근초
▶ 5~6월 수 4월, 10월 ↑ 70cm



퐁크타타췌샬롬
Lysimachia punctata
앵초과·속근초
▶ 4월 수 3월, 10월 ↑ 1m



목련 '엘리자베스'
Magnolia 'Elizabeth'
목련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목련 '골드'
Magnolia 'Gold'
목련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0m



목련 '로이스'
Magnolia 'Lois'
목련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12m



레판스 블랑쎄 '로툰디폴리아'
Mahonia repens 'Rotundifolia'
매자나무과·상록활엽아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m



와그너 블랑쎄 '언둘라타'
Mahonia x wagneri 'Undulata'
매자나무과·상록활엽아관목
▶ 4월 수 3월, 10월 ↑ 2.5m



수선화 '비터'
Narcissus 'Bitter'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50cm



시클라미네우스 수선화
Narcissus cyclamineus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20cm



수선화 '다네'
Narcissus 'Dane'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70cm



수선화 '골든 돈'
Narcissus 'Golden Dawn'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60cm



수선화 '서니 사이드 업'
Narcissus 'Sunny Side up'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60cm



수선화 '트리플 크라운'
Narcissus 'Triple Crown'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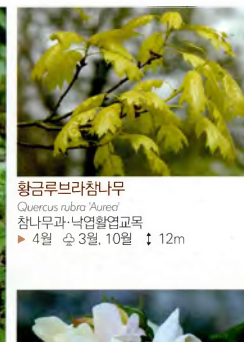
수선화 '업 데이트'
Narcissus 'Up date'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60cm



수선화 '옐로우 치어폴니스'
Narcissus 'Yellow Cheerfulness'
수선화과·속근초
▶ 4월 수 10월 ↑ 60cm



루테아 모란
Rosa delavayi var. lutea
작약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1.8cm



황금루브라참나무
Quercus rubra 'Aurea'
참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진달래종류
Rhododendron sp.
진달래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3m

오도라통까치밥
Ribes odoratum
범의귀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2m

황금루브라참나무
Quercus rubra 'Aurea'
참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월 수 3월, 10월 ↑ 12m



동굴장미 '루테아'
Rosa banksiae 'Lutea'
장미과·낙엽활엽만경목
▶ 5월 수 3월, 10월 ↑ 4m



동굴장미 '이슬레아 골든 램블러'
Rosa 'Easlea's Golden Rambler'
장미과·낙엽활엽만경목
▶ 6~7월 수 3월, 10월 ↑ 8m



찰로테 장미 '아우스폴리'
Rosa Charlotte 'Auspoly'
장미과·낙엽활엽만경목
▶ 6월 수 3월, 10월 ↑ 2m



솔리반티 원추천인국 '골드스텝'
Rustbeckia fulgida var. sulbanti 'Goldstep'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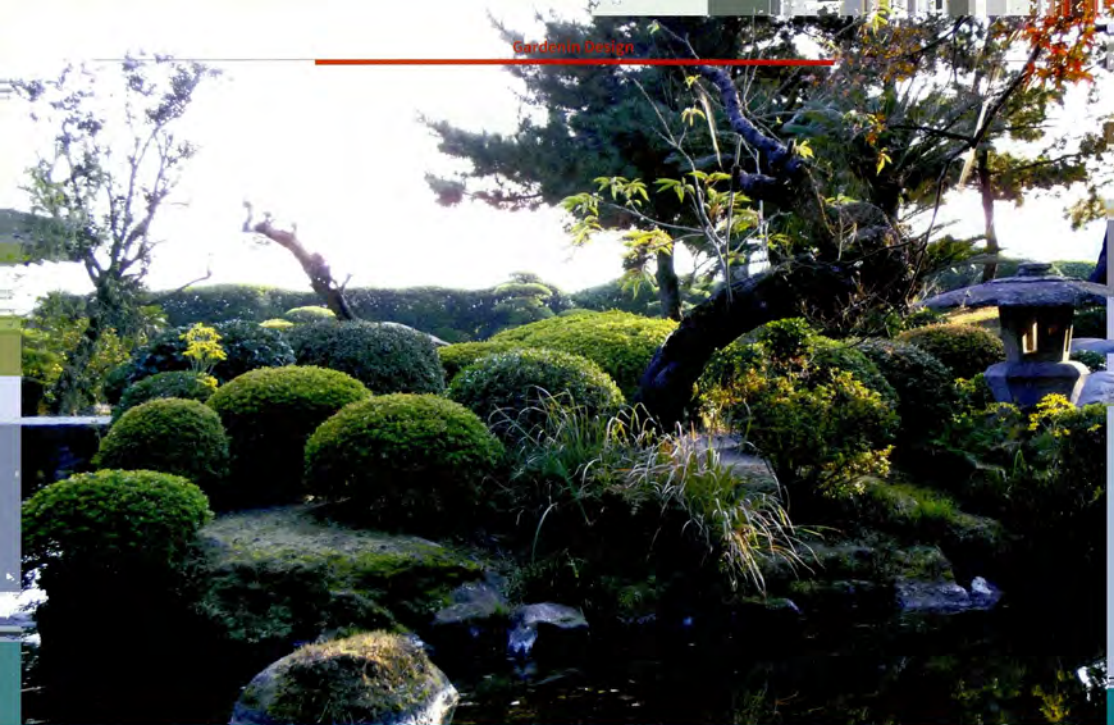
원추천인국 '프라리에 선'
Rustbeckia 'Prairie Sun'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4월, 10월 ↑ 1m



다이필럼 스틸로포룸
Stylaphium diphyllum
앵귀비과·속근초
▶ 5월 수 10월 ↑ 45cm



쿨치쿰 삼치구염초
Epimedium pinnatum subsp. colchicum
매자나무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50cm



가고시마, 야쿠시마 Trecking

일본 큐슈섬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 땅 일 것이다. 가깝고 친숙하고 음식과 여러 문화권에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가장 호기에 잘 맞아서 일 것이다. 본인도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생 가장 많이 다녀 온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기 힘든 곳이 이 큐슈섬에 있다. 큐슈섬 남단의 도시 가고시마에서 배를 타고 약 한시간 쾌속정을 타고 남쪽으로 가면 동그란 모양의 야쿠시마란 섬이 있다. 그 섬 자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을 만큼 특이한 곳이다. 제일 유명한 것은 몇 천년 수명이 된다는 스기나무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죠몬스기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이다. 일년에 비가 380일 온다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 될 만큼 강수량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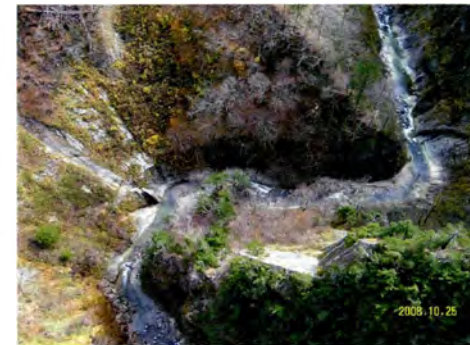
이곳을 2박3일 일정으로 트래킹을 2008년 12월 다녀왔다. 12월 초인데 워낙 남쪽이라 의심스러운 기온으로 갔는데 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산 입구까지 제법 산길을 올라가서 트래킹 입구까지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갔다. 으산하고 바람부는 습기 가득한 초입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도를 더해 갈수록 바람도 세지고 기온도 내려가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하여 시야권이 적으려다 사진도 흐릿하게 나오기 일쑤였다. 하루 종일 걸어 나무로 만든 헛트에 도착했다. 돈받는 곳도 아니고 겨울이라 일본인 5명 제법 나이든 여성 4명, 남자 한 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고행의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분들이 존경스러워 보였다.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밤새 눈이 제법 많이 왔고 전날 저녁을 먹고 밖에 놓아둔 음식물이 사슴들에 먹잇감이 되어 난장판이었다.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 하강을 몇 시간 한 뒤에야 죠몬스기 등 거대한 스기나무 군락을 만났다. 나무 하나의 둘레가 사람 10명이 감싸야 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 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쇼몬스기의 씨앗이 원천이 되어 일본 전역에 확산 되었고 한국 특히 제주도 지역에도 스기 나무의 원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년 아무 때고 4계절을 다 맛볼 수 있는 기후측면에서도 재미있는 나라이다. 그런지 일본 산을 다녀보면 한국과 자연 식물, 나무와 들이 많이 다르다. 일본 단풍은 아름답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야쿠시마를 떠나 다시 가고시마로 돌아와서 그 지역 산과 정원을 둘러 보았다. 일본 백대 명산 중 하나가 인근에 있는데 이름이 한국산이다. 일본말 표기로는 다르지만 한문으로도 우리나라 한국하고 같다.

그 곳 정상에 올랐을 때는 눈바람에 설화가 이제까지 보던 중 제일 장관이었다. 워낙 눈이 많이 온데다 바닷바람이 강해서 인지 습기가 나뭇가지에 붙어 확실한 설화 정원을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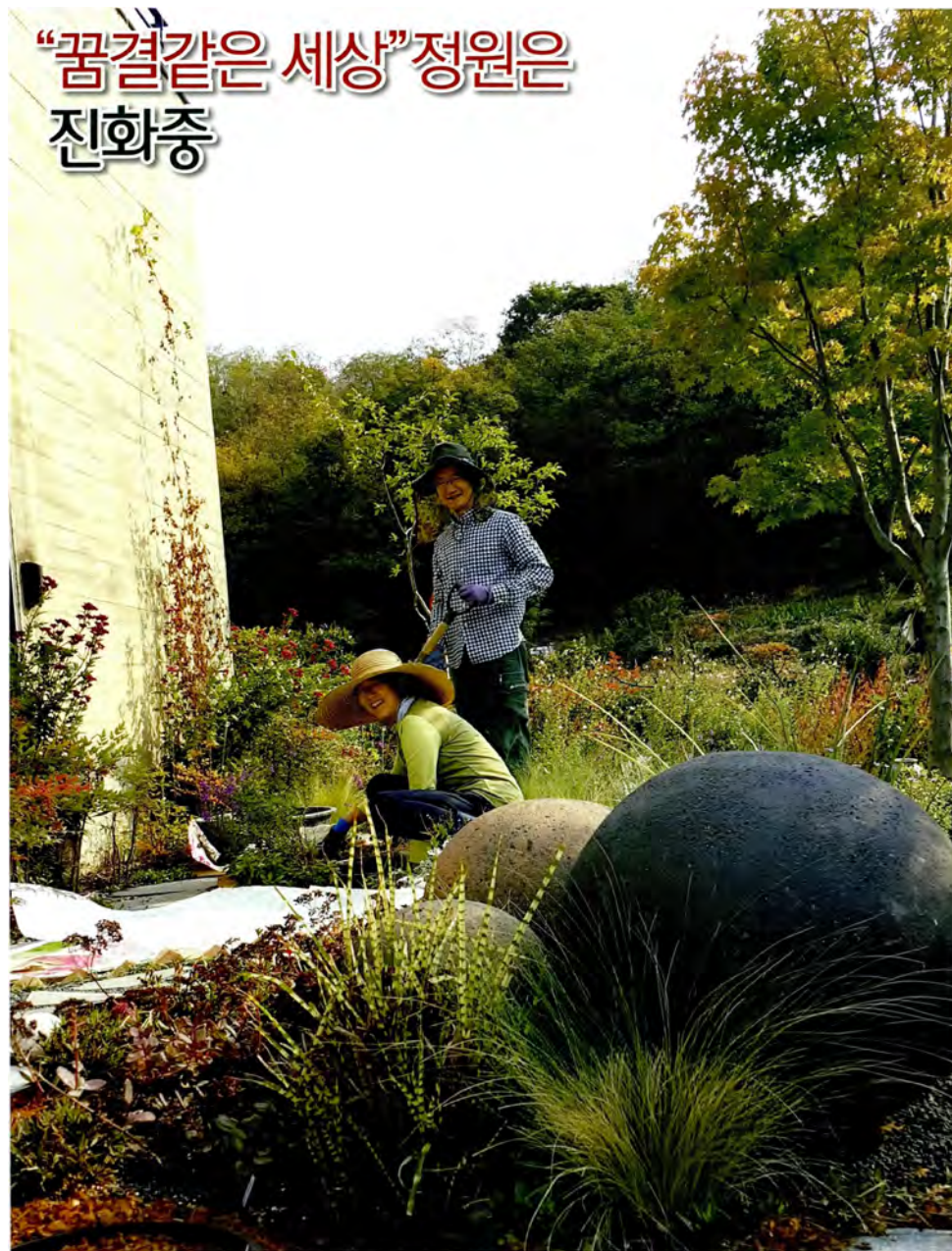


가고시마 도심근처에 옛날 어느 갑부가문 대대로 만들어 놓은 유명한 정원이 있다. 바다근처에 있어 맞은편에는 요즘 다시 뿔어대는 활화산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어 풍광을 더해준다.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 하고 계류 등 소나무와 단풍 등으로 단장한 정원이라 우리 눈에 익숙하지 만 규모도 있고 오랜 세월 잘 관리한 정원이라 볼만하다.



일본은 공공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는 반면 이용 고객수가 적어서 일본말을 몰라도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혼자이어도 가족과 단체관광을 피해서 적은 경비로 트랙킹을 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에게선 천하의 보고이다. 오늘 결정해서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는 곳이고 다만 본인의 용기만이 다양한 자연을 선사하는 곳이다. 워낙 안전하고 친절하 나라이기 때문 배낭과 카메라 챙겨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꿈결같은 세상” 정원은 진화중



전북, 전주 정현경, 한상주 (미르 소아과 원장) 정원사

정원은 매 순간 진화가 필요하다

오늘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경박람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제 정원에 표현해보려고 잘 가꾸은 가운데 원형 정원의 잔디를 떼어냈습니다. 새댁시절 한토막의 행운목에서 시작한 제 놀이가 배란 다 가득한 식물로 늘어나고 마당있는 집으로 나온지 3년, 배란다를 빔내주었던 제 놀이친구들은 마당으로 나오는 걸 마냥 즐거워하진 않았습니니다. 달라진 햇빛, 비, 바람, 벌레들, 먼지, 추위 등등 포트에서 자라던 아이들을 땅에 심어준다고 다 잘 자라지도 않았습니니다.

첫 조경 때 마당 가득 심어놓은 잔디를 아꼈아꼈 떼어내고 꽃밭을 만든 덕에 지금은 삼 한자루와 작은 호미 하나면 잔디쪼름은 우습게 떼어내게 되었죠.

생 울타리로 심은 쥐뚝나무 뿌리가 작은 공간에서는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함을 알게 되었고, 고된 끝에 처음 울타리로 식재하고 기쁘게 바라보던 쥐뚝나무를 캐어내는 용기에 다음 선정은 팡팡나무로 울타리를 정하고, 키가 낮아 그 아래 꽃을 가꾸기 어렵게 했던 비스듬한 소나무는 자귀나무로 바꾸며 정원의 형태가 변화하며 디자인을 점목시킨지 일년이 되어갑니다.



제 2호 배란다정원

작은 공간에 창의성을 부어 넣으려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최선...

작은 공간에 타사투더의 정원처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울리게 하는 데는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느낌이 필요하다는 걸 터득하는데 2년이 걸린 셈입니다. 정원은 야생화에 심취해 찾아다니던 자연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기본 공간의 준비로 식재와 식재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색상, 디자인, 질감, 구도 조화 등등 책을 찾아보고 잡지를 구해 읽고 여기저기 식물원도 다녀보고 그 도 성에 차지 않아 왕복 5시간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전주 ~ 이천 거리의 조경대학에도 다니고.....

그러다보니 좋은 분들 감사한분들도 만나게 되고, 개인 정원의 방문으로 안목도 넓히며, 실질적인 학습에 직접적인 응용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즐거움을 느끼다보니, 사람보다 꽃이 좋으며 고운 손과 흰 피부를 마다하고 홀만지고 살았는데 다시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네요.

오며 가며 눈여겨 봐두었던 조형물을 구입하고 바닥을 구상하고 그라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고 있습니다. 봄 튜립으로 시작해서 여름 화이트, 가을 보라와 분홍을 즐기던 계절 정원을 좀 덜 힘들이고 식물을 바꿔줄 요량으로 포트를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 이맘 때 포트가 많으니 별로라며 다시 캐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정원, '꿈결 같은 세상'은 진화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꿈결같은 세상 식물목록

2015.11월 현재

나무 16종 : 소나무, 금송, 이팝나무, 청단풍, 공작단풍, 자귀나무, 라일락, 장평나무, 위동나무, 개꽃나무, 남천, 꽃평강나무, 조팝나무, 철쭉나무, 느티나무, 갈나무

실내식물 25종 : 아디만텀,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해피트리, 관음죽, 행운목, 알로카시아, 고무나무, 사인프러스, 인스리움, 율마, 병솔나무, 자스민, 왓스플라워, 기린초, 란타나, 덴마크무궁화, 포인세티아, 알파채스, 후크시아, 트라초스, 포인세티아, 여우꼬리, 부겐베리아, 제라늄

구근식물 10종 : 수선화, 일리움, 튜립, 무스카리, 백합, 프스키아, 치오노독사, 아이페이션, 크로커스, 스노우드롭

덩굴식물 7종 : 담쟁이, 인동, 붉은인동, 코베아, 마삭줄, 클레마티스, 능소화

지피식물 9종 : 빈카마디나, 황셀초, 백리향, 섬백리향, 은배초, 발노람이, 애기별꽃, 아주기, 소엽백운동

그 외 초화류 120여종 : 은방울꽃, 동글레, 수호초, 꽃창포, 감국, 중비비추, 비비추, 하늘국화, 나도사프란, 사계페랭이, 가우라, 예기나리, 매발톱, 꽃잔디, 할미꽃, 아스타국화, 보들레아, 이끼왕담, 풍로초, 백두산구절초, 알록재비꽃, 루피너스, 사탕초, 한련화, 사스타데이지, 구절초, 알록재비꽃, 원추리, 가시원추리, 벌개미취, 산수국, 무늬산수국, 수국, 옥잠화, 돌나물, 흰줄무늬사리대사초, 황금무늬자리대사초, 더덕, 작약, 해국, 아르메리아, 섬기린초, 큰평범버리, 파란잎 평범버리, 금강애기리란초, 가미줄바위솔, 마리아기, 코레우리, 알개밀라, 부레옥잠, 장단, 일일초, 예기네시야, 백도국, 해오리바시초, 노루오줌, 금강화, 개모아일 로먼, 개모아일 모로코 사계국화, 국화종류들, 당귀, 벌부채, 펜스테몬, 컴프리, 두매암귀비, 알귀비, 금강화, 베르가못, 일릿성, 매화철떡이, 카멜레온, 솔채꽃, 삼색재비꽃, 바위취, 박수초, 틈물, 버바스름, 접시꽃, 청화국, 페르시아국화, 가시새부엌이, 두메부추, 산부추, 노루귀, 참꽃마리, 리아트리스, 호홉여새, 털수염물, 흑심패랭이, 실백묘국, 한꽃세담, 우궁국화, 물망초, 비스카리아, 클라리아, 꽃아미, 안젤로니아, 풍점초, 유로비아, 라일락베네나, 절굿대, 꽃범의꼬리, 바일렌드, 초콜릿코스모스, 펜터스, 복부쟁이, 천안국, 꽃황유, 말쑤비비추, 꼬리물, 여우꼬리앤드라미, 세이지, 로즈마리, 구문초, 해바라기, 코스모스



일리움 마가렛



은배초



금강화



오솔길



몽키트리꽃



해국



백합



무메부추



해국



신대정원 병솔나무



클레마티스



버바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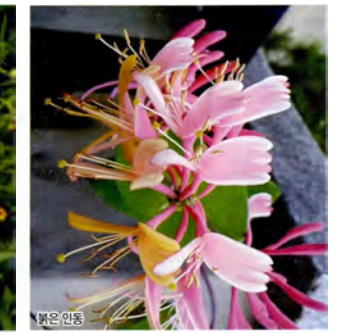
복합



왕아주기



대청부채꽃



붉은인동



사계국화 풍선꽃



몽키트리피



코베아



왕솔기 펜스타몬



아가판서스



삼색묘국꽃



삼색묘국꽃



기운력



금강나루



“꿈결 같은 세상” 정원



전북 전주 전원주택

정원디자인의 진화과정

약 40여평의 정원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았지만 옥상의 공간이용과 실내정원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 정원이다.

4개의 원을 그려보고 정원의 연결을 위한 곡선의 정원길을 연장해보며 실내정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겨울에도 넓은 정원을 바라보는 효과를 기대한 공간이다. 미래에는 옥상 정원도 풍성하여지면 초록의 향연이 너무 넓은 공간임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원주택 초보자이고 아파트생활에서 배란다 정원을 이용한 것이 식물과 경험한 시간들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과 식물에 대한 연구와 열정이 “꿈결 같은 세상”의 정원으로 모두를 소개하는 공간을 보여줄 수 있고, 계속하여 이러한 정원공간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편집자의 마음으로 하나씩 소개하기로 한다.

작은 공간이기에 늘 넓은 것을 찾기 보다는 작은 공간을 보다 더 알차게 꾸미려는 노력이 더 다양한 정원의 공간을 탄생하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된다.



before 입구



After 대문 입구의 정원부터 심그려움을 자아낸다. 자연스러운 가우라의 움직임이 정원을 훑쳐보고 심도록 유혹한다. 계단마다 올라간 작은 포토도 눈길이 가는 정원. 정원사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방문을 청하고 싶은 곳이다.



이른봄 안마당 입구의 꽃.



before 앞마당 입구



before 오솔길



After 정원의 연결 통로인 오솔길은 계절마다 아니 매일 변화를 주며 정원을 맞이하는 긴 통로이고 길으며 많은 것을 꿈꾸게 하는 곳이다. 화석다듬돌에 흰색 조각들을 부려주어 좁지만 넓은 시각효과를 주어 넉넉히 편안하게 정원으로 안내하는 길이다.

작은 오솔길에서 바라보는 여러가지 볼거리가 많이 준비된 정원. 정원은 다양한 모습이지만 식물이 모든 흐름을 이어가는 또 다른 공간 예술의 창조적이고 변화하는 공간이라 지루함이 없다.



마주 보이는 공간이 주택의 현관이며 실내정원으로 연결되어 식물로 가득찬 공간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갈 때 식물원을 방문하는 느낌이다.



외부 정원의 작업비용을 절약하여 실내정원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집에 들어서면 웅장함도 주어, 정원이 적다는 표현은 사라지고 식물원을 통과하여 실내로 들어가는 기분 좋은 곳이다. 실내정원으로 2층으로 이어져있다. 겨울에도 실내온도가 20도 까지 오른다고 한다.



정원에는 식물도 있지만 식물들 뿐보이도록 장식물도 중요하다. 색상과 디자인을 집과 공간에 잘 맞추어 설치 한다면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탄생이 된다. 시멘트 건축물의 색상과 곳곳에 놓여진 장식물이 정원을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유도하는 공간을 완성하였다.



Before 중정정원



한상주 정원의 작업과정



After 중정정원 모습 - 초보자들이 직접 밑그림으로 원형 그린 후, 천다가 밖으로 자라지 않도록 그란베트를 심어주고, 벽돌을 비스듬히 세워 정원 경계선을 만들어 주었다. 작업은 두 정원사가 직접 한달 한달 정성과 수고로 만드는 곳이라 추억과 이야기 거리가 많은 곳이다. 정원은 이렇게 수고한 만큼 변화하고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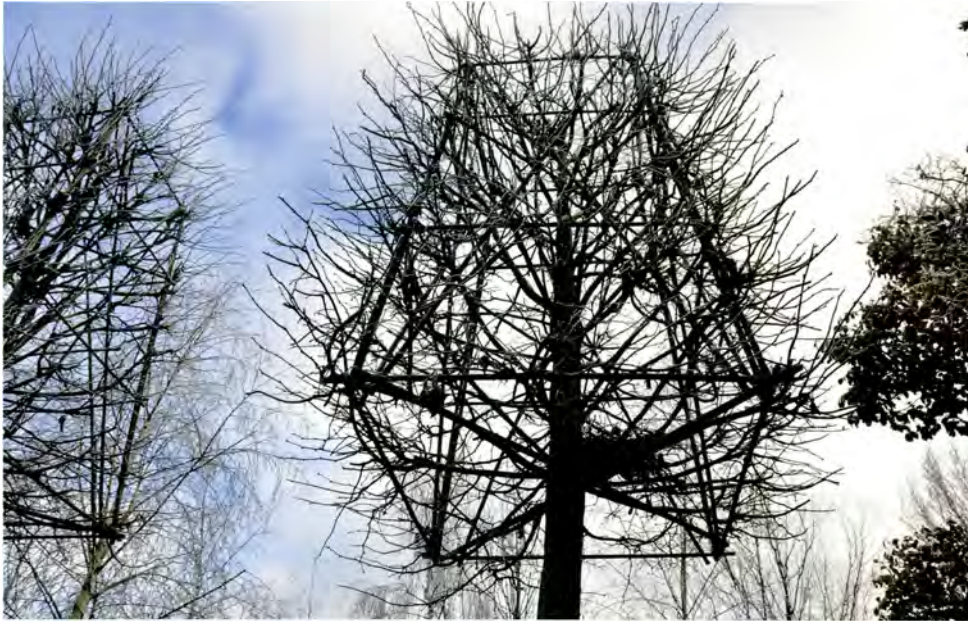


손 관 화 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영국의 정원수 용기 재배

영국 정원 관련 잡지에 마제스틱 트리(Majestic Trees)라는 농원(nursery)의 광고가 있었다. 대형 정원수를 용기에 심어 키우는 농원이었는데 규모가 큰 것 같아 가보기로 했다. 런던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농원이 있으나 작은 마을이라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세인트 앨번스(St. Albans)역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었다.



마제스틱 트리 농원의 면적이 얼마인지 홈페이지에서 찾질 못했는데 몇만평 되는 것 같다. 재배하고 있는 정원수 종류는 약 450종류이고 50L에서 5,000L 용기까지 2~13m 높이의 나무 7,000여 그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정원용 나무는 다 있는 것 같다. 이 농원에서는 모든 정원수를 용기에 심어 점적식 관수로 관리한다. 알다시피 용기에서 키운 나무는 이식시 용기만 제거하면 되니 뿌리가 잘려지지 않아 이식 후 생육이 좋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용기에서 키우면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데, 용기의 구입과 점적식 관수시설, 그리고 용기에 옮겨 심는 작업, 태풍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 등의 비용이 필요하고 용기의 크기에 따라 대지에 그대로



심을 때 비해 크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관수시 비료 공급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용기 재배를 하는 대형 농원들이 있으나 서울 인근 나무 시장에서는 소형 정원수 외는 용기에 키운 나무를 별로 보지 못했다. 소규모 정원수 농원들에는 오히려 단가와 관련해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나 보다.

마제스틱 트리 농원을 둘러보니 비교적 작은 나무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심고 대형 나무들은 에어포트(air pot)에 심는다. 에어포트는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재료지만 한국에는 아직 이용되지 않는 것 같다. 에어 포트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플라스틱 판을 둥글게 말아 둥근 원판 플라스틱 망을 바닥에 부착해 나사를 끼워 조립한



용기이다. 바닥 원판 구멍을 통해 뿌리가 대지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나무를 키우기 위해 용기를 배치할 때 바닥에 부직포를 깐다. 나사만 풀면 에어 포트가 펼쳐지므로 떼어내기 쉽다. 이송을 위해 뿌리분을 마프로 감싸 철사로 묶어 고정하는데 마제스틱 트리 농원은 이송과 식재 서비스도 한다.

12월에 방문한 농원은 서리가 내려 멎었는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농원을 둘러보니 온갖 종류의 정원용 상록수와 낙엽수들이 가득 차 있다. 런던 근교의 위도이다 보니 한국의 남부지방에서만 가늠한 상록수들이 많다. 정원수가 필요하면 이 농원에서 거의 모든 나무를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 나무들의 수형이 좋은 것 같다. 재배하는 정원수마다 학명이 기재된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고 사무실에는 농원에서 판매하는 정원수의 이름, 규격, 가격이 정리된 목록이 구비되어 있어 가격표 한 부를 받아 왔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최대 규모 나무 매장에도 식물명과 가격표는 붙어 있지만 잘 정리된 목록은 없다. 소규모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소량 다품목으로 정원수를 구매해야 하는 우리는 원하는 나무를 한 장소에서 구입하기 어려워 그 매장에만 있는 것으로만 선정하여 구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마제스틱 트리 농원을 방문해 보니 종류가 많아 부러웠다. 용기 재배에 대한 부러움은 대형 정원수를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에는 문제가 없어 특별히 관심이 가진 않았다. 국내 전문 농원에서는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다.



Step by Step



에어포트(air pot)



1 플라스틱 판을 둘러 컨테이너로 만든다



2

이송하기 전 플라스틱판을 벗긴다



3

플라스틱판을 벗긴 후 마포를 씌고 철사로 둘러싼다



4

자차로 옮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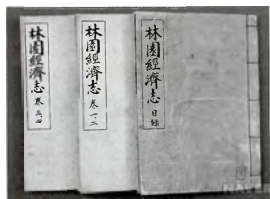
트럭에 올린다





옛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원 조성하는 방법을 남긴 서유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글/사진 김 홍 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공예일러스트가
주요

2015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이슈로 떠오른 것이 정원이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4월부터 정원에 관련한 세미나 및 토론회, 학술심포지엄이 매 주 열렸고, 5월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코리아가든쇼, 7월에는 수목 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8월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 정원 1호로 지정, 10월에는 2015 서울정원박람회와 한국정원디자인 학회 학술회의에 이르기까지 정원에 대한 다채로운 일들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대세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 같 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 는 정원문화가 보급되길 기대하며,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들도 ‘월간 가 든인’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접 정원을 만들어 보 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원은 직접 몸으로 가꿔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2015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학술심포지엄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



2015 농촌정원 심포지엄

2015년 가든인 마지막 호가 발행되는 12월 기사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소개합니다. 서유구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 드리고 ‘임원경제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서유구(1764~1845)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영조와 현종 임금 때의 문신으로 다산 정약종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할 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업에 대한 연구를 남긴 것을 이어받아 농학을 집대성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나이 35세가 되던 해에는 순 장군수로 있었는데 정조가 농서를 구한다는 소식에 각 도 단위로 농학자를 한 사람씩 배치하여 지방마다 농업 기술이나 현황을 조사하 게 하여 종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서유구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되도록 명을 내렸냐고요?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 했습니다. 비록 그의 제안이 실현은 되지는 못했지만 농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유구를 알아봤으니 이제 조선 후기의 옛사람들이 수려한 산과 물을 배경으로 집을 짓고 정원과 주변 환경을 가꾸는 방법을 모아놓은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살펴봅시다.

• 서유구 ‘임원경제지’ 내용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1, 2백 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집을 짓기 좋은 곳으로 선택했는지, 어떤 건축재료를 마련하였 으며 정원이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책입니다. 앞선 10월호에서 소개한 강희안 ‘양화소록’, 유박 ‘화암수록’은 화초에 대한 내용에 집중했다고 하면, 임원경제지는 흥만선 ‘산림경제’ 보다 체계적이고 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16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은자가 사는 집에 대한 기록은 ‘이운지’로, 터잡기와 집짓기 는 ‘상택지’로, 집짓는 법과 재료는 ‘점용지’로 각각의 첩터를 마련하여 정리하고 기타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는 천문학, 가축 기르는 것 과 양봉하는 법, 향촌의 의례와 행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등 농업, 생물학, 원예, 예술, 천문 등 건축과 조경에 관한 내용을 전면적 으로 풍부하게 저술한 책으로 유일하며 그 가치는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 임원경제지 정원조성 팁(tip): 나무, 울타리, 연못·우물, 담장

주택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는 경우에 어떤 점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 니다.

1) 나무심기: 나무를 심어 사상을 대신하는 법

- 사상은 집의 왼편에 물이 흐르고, 오른쪽에 큰 길이 있고, 앞에 연못, 뒤편에 구름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동쪽에는 복숭 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으며,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심고, 북쪽에는 사과나무와 살 구나무를 심는다.

2) 인가에는 반드시 수목이 푸르고 무성해야 한다.

- 주택의 가장자리 네 곳에는 대나무와 수목이 푸르려야만 재물이 모여든다.

- 인가는 벌거벗어 붉게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수목이 깊고 무성하게 자라서 기상이 중후하도록 해야 한다. 하천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 놓으면 수재를 막기에 적합하다.

3) 나무의 향과 배치

- 나무는 주택을 향하는 것이 길하고, 주택을 등지는 것은 흉하다.

4) 나무를 심는 데 기피해야 할 것

- 주택의 동쪽에 살구나무가 있는 것은 흉하다. 주택의 북쪽에는 배나무가 있고, 주택의 서쪽에는 복숭아나무가 있으면 사는 사람 모두 가 음담하고 사악한 짓을 행한다. 주택의 서쪽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사형을 당한다. 주택의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말이 불어나고,

주택의 서쪽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소가 불어난다. 가운데 문에 화화나무가 있으면 3대 동안 부귀를 누린다. 주택 뒤편에 느릅나무가 있으면 갖가지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 돌 앞에는 오동나무를 심지 말라. 주인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리고 집안에 파초를 많이 심는 것은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재앙의 빌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대청 앞에는 석류를 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늘을 드리운 곳에 꽃을 심어 화단을 만들면 음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손해를 불러들이니 음양이 꺼려하는 바다.
- 마당 한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한가롭고 공경하다고 한다. 나무가 오래도록 마당 한가운데 심어져 있으면 양화를 주관한다. 큰 나무가 난간에 가깝게 서 있으면 질병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다. 문 앞에 두 그루의 대추나무가 서 있으면 기쁜 일과 상스러운 일이 생긴다. 문 앞에 푸른 풀이 있으면 근심스러운 일과 원한에 찬 일이 많아진다.
- 문 밖의 수양버들은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 주택 안에 봉나무를 심고 아울러 무궁화와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종내 평안하게 지낼 수 없다.

다음은 주택 주변 즉, 정원의 울타리 세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록에 따라 바로 해봐도 될 만큼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면, 먼저 대지의 사방 가장자리에 감이와 폭이 두 자씩 되게끔 구덩이를 판다. 메대추(산대추나무)가 익기를 기다렸다가 그 씨를 많이 채취하여 파놓은 구덩이에 심고, 싹이 튼 다음에 잘 보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1년 후에 높이가 세 자정도로 자라면 봄에 가로 자란 가지의 가시를 제거하고,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새끼가 엮어서 울타리를 만든다. 이때 적당하게 묶어서 엮는다. 그 다음 해에 나무가 더욱 높이 자라면 도적을 방지할 수 있다.

예부터 물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 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물이 고이는 자리에 따라서 좋고, 좋지 않음을 구별해서 공간 조성에 활용했습니다. 임원경제지에서 연못과 우물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게 있어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우물

- 자좌(북쪽)의 땅에 우물을 파면 반드시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
- 묘좌(동쪽)에는 우물을 파지 않는다. 물맛이 좋은 샘물이라도 향기가 없기 때문이다.
- 집 앞에는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 인(寅)방에 샘을 파면 부귀하게 되고, 묘(卯)방에 샘을 파면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나며, 진(辰)방에 샘을 파면 술과 음식이 끊어지지 않고, 사(巳)방에 샘을 파면 자손이 번성하고, 오(午)방에 샘을 파면 손녀가 음탕하고, 신(申)방에 샘을 파면 권리가 재앙을 입어 병사하고, 축(丑)방에 샘을 파면 부부가 헤어지고, 자(子)방에 샘을 파면 자손을 잃거나 팔다리가 꺾인다.

2) 연못

- 집 뒤편에 동산을 만들어 과실나무를 심고, 집 좌우에는 남새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는다. 집 남쪽 한 면을 비워두고 위아래에 연못을 파되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만든다. 작은 연못에는 연꽃을 심고, 큰 연못에는 물고기를 기른다.
- 물이 맑으면 순채를 심고 물고기를 기르며, 물이 흐르면 연꽃을 심는다.
- 연못이 집의 왼편이나 오른편, 또는 뒤편에 위치하는 것을 모두 꺼린다. 문 앞에 세 개의 연못을 파는 것을 절대 꺼린다. 집의 앞뒤에 2개의 연못이 있는 것을 꺼린다. 또 연못의 형상이 돼지 배나 돼지 허리와 같은 것을 꺼린다. 문 앞에 한 쌍의 연못이 있는 것을 꺼리는데 곡(哭)자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이다. 집의 서편에 연못이 있는 것을 일컬어 백호(白虎)가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 모두 꺼린다. 주택 앞에 둥근 형태의 연못을 현하게 내고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 통하게 한다. 물이 혼탁하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담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담장도 기초를 조성하는 방법, 흙담인 토담쌓기, 돌담쌓기, 중국 민가 담장인 영룡장, 담장지붕 쌓기까지 담장 전체의 조성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조경공사 시방서 못지않습니다.

1) 담장 기초

- 담장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초에 유의해야 한다. 기초를 석 자 이상 파내려가 굽은 모래를 부어놓고 물을 뿌리면서 달구로 다져, 지면에서 아래로 한 자쯤 떨어진 곳에서 쌓기를 그친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아 기초를 만든다. 여기에 쓰이는 돌은 크기, 두께와 관계없이 위아래 면이 평평하고 반듯하여 겹쳐 쌓아도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돌을 겹겹으로 쌓아 올려서 땅 아래로 들어간 것이

한 자, 땅 밖으로 나온 높이가 두 자가 되면 그 위에 담을 쌓는다. 벽돌담이거나 돌담이거나 토담이거나를 막론하고 기초는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한다.

2) 토담쌓기

- 우선 자갈을 이용하여 지지할 자리를 만든다. 그곳에 흙을 쌓아올려 달구로 다져 그 형상을 지붕 마룻대처럼 만든다. 다시 진흙을 사용하여 굵게 번 벚짐과 섞어 그 위에 다져쌓는다. 높이가 서너 치가 되면 바로 중단하여 쉽게 마르도록 한다. 완전히 말라 굳은 다음 또 앞의 방법으로 다져 쌓는다. 이때 진흙이 차진 정도를 적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 뒤에라야 앞뒤에 쌓은 것이 한결같아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담장을 쌓는 데 쓰는 흙은 누런 모래가 가장 좋고, 황토가 그다음이고, 흑토(검은 빛깔의 흙)가 가장 나쁘다.

3) 돌담쌓기

- 중국의 담장은 대체로 벽돌을 이용하여 쌓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벽돌이 귀하기 때문에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자갈을 취하여 반듯하게 다듬어서 진흙과 서로 번갈아가며 쌓아올린다. 어깨 높이 이상 쌓고서는 깨진 기와를 이용하여 쌓아올린다. 자갈과 번갈아 쌓은 진흙은 자갈을 쌓은 커와 면을 나란하게 하지 않고 조금 움푹 들어가게 한다.

다시 석회와 벽토를 섞어 반죽하여 움푹 들어간 곳을 바르면 흰 무늬가 종횡으로 나서 불만이다. 세상에서 이것을 분장(粉牆)이라 부르는데, 상당히 내구성이 좋다.

4) 담장지붕 쌓기

- 담장의 지붕은 석판을 쓰는 것이 알맞다. 석판의 길이는 담장 두께와 비교하여 한두 자정도 길게 한다. 석판의 양 끝을 나란하게 하여 담장 위에 가로로 설치한다. 먼저 한 겹을 깔고 다시 한 겹을 까는데, 석판이 맞닿은 부분이 서로 어긋나서 교차되고 어긋나도록 하여 빗물이 새어드는 것을 막는다. 다시 석회, 가는 모래, 황토를 짓기여 반죽한다. 두 손으로 진흙을 쳐서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 석판 지붕 위에 계속 눌러 덮는다. 다시 손으로 비벼서 가지런하고 둥글게 만들어서 마치 요즘의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장 위에 석회를 바르는 법과 같이 한다. 이것은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다. 또 햇빛이 돌을 달굴 때는 뱀이 담 위를 기어 넘거나 서리지 못한다.

· 조경과 건축, 정원을 아울러 옛사람들의 삶을 담은 생활백과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민속에서 전해지는 미신 같은 요소도 보이는 것 같고, 풍수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접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건축을 공부하던 학부생 시절에 전통조경 및 정원을 공부한답시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접할 때는 '에이~ 요즘에 이런 것 안 믿지!'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원을 탐구하게 되면서 옛 문헌이나 기록들을 찾아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공간을 조성하는 사상과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정원문화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정원의 기록들을 곱씹어 볼 가치가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전통정원 중에서 '담양 소쇄원', '보길도 세연정', '영양 서석지'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별서정원들을 소개했었고, 조선시대의 조경과 정원 문화를 담은 강희안 '양화소록', 유박 '화양소록', 홍만선 '산림경제', 서유구 '임원경제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통정원 소개와 옛 문헌 소개 기사 사이에 한택식물원, 광릉수목원, 평강식물원의 경관을 담아 가든인에서 공유했습니다.

정원 조성 및 문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시민들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직도 도시의 삶이 정원을 충분히 향유하고 가꿀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지가가 높은 땅에 정원을 한 평이라도 조성하는 것이 아직 일반화되지 있지 못 합니다. 정원의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많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정원문화 융성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제도와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관리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정원 산업이 크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사랑하고 가꾸고, 그 속에서 문화를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 2016년에도 정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히는 전라구례오미동기묘(구례 윤조루)의 주택과 정원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치유의 정원

카톨릭 “미소 가득 화초 봉사단”의 재능기부

이천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글.사진 우정아



개원한지 25년이 된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안에 4만5천여 평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카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 마음을 모아 정원에 재능기부 봉사를 하는 30여명의 미소 가득 화초봉사단이 함께 하고 있다. 관리를 시작한 것은 1년 정도로 짧지만 기존의 정원이 정적인데 반해 동적인 소정원을 자투리 공간에 조성해 환자들의 마음의 치유와 교감을 통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있다. 김선규 프란치스코 원장 수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병원이라는 특성에 맞는 정원을 조성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우연히 모현 의료센터에 조성된 보니또 정원을 보고, 봉사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봉사단의 마음을 움직여 성안드레아 병원에서도 아름다운 소정원을 가꾸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봉사는 재능을 기부하는 노동봉사와 재원을 지원하는 물질봉사로 나누어 각자에게 맞는 부분을 지원하고 봉사는 주 1회하고 있으며, 주로 식물심기, 잡초제거, 정지, 전정 등을 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 존중을 최우선하는 국내 최초 개방형 정신병원으로 대한민국인권상 수상까지 한 이 곳에서 재능기부는 또 다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시절부터 환자들의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의 병원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그로 인한 인연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꿈이 되고, 현실이 된 것이다.



소정원의 조성은 처음 잔디와 나무만 있던 정원에 공사장의 기초 작업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좋은 돌을 골라 판석으로 사용해 작은 길을 만들고, 길 옆으로는 마운딩을 해서 작은 언덕에 키가 작고, 다양한 색을 가진 식물들을 식재해서 누구나 정원 안으로 들어가 일부가 될 수 있게 해, 감상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달리해, 매주 달라지는 정원에 모습에 환자들의 즐거움과 궁금증이 한층 환자와 봉사자들간의 마음의 틈이 좁아지는 것을 봉사자들은 보람으로 여기며 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미리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병충해 관리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정원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으며, 비료 관리는 가을에 밑거름 주고 필요한 곳에 웃거름을 주고 있다. 정지, 전정은 가을에 전체적인 가지치기를 해 주지만, 수형의 보정이 필요한 나무는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한다.

개방 병원이지만 중증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이 따로 있어서 그들은 위해 실내에도 플랜트박스로 작은 소정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플랜트 박스의 제작도 기증 받은 소나무와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식물 또한 기증받은 것으로 제작했다. 이 관리는 원장 수사님이 하시는데 환우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가 생겨 환우를 한번 더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실내 정원은 3주에 한 번 정도 관리하고,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바로 교체해 주어 환자들의 심리 상태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기증 받은 수국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나비 모양으로 식재했는데, 수국은 겨울에 월동이 되는 품종이 많으나 꽃 눈이 냉해를 입어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보온이 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동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 식당 전면에 자투리 공간에도 수국과 야생화를 이용해 소정원을 만들어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정원은 직원식당에서는 바로 보이는 곳이지만 외부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기에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봉사단의 리더인 신현자씨는

“이곳에 활력인 넉지는 정원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교편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우울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치유가 특히 식물을 마주하게 되면서였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 소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 주고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이들은 사랑에 인색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되어 꿈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박스과 나뭇잎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리스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회장



1 박스로 2개 준비해 앞뒤로 리스모양을 그리고 잘라낸다.



2 잘라낸 리스틀 4 장을 글루건으로 붙인다.



3 나뭇잎을 글루건으로 한 방향으로 붙인다.



4 송곳으로 구멍을 2개 뚫어 준다.



5 토분을 철사로 갈아 리스에 고정시킨다.



6 녹영의 부리를 이끼로 감싸고 토분에 식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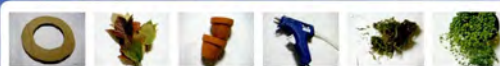


>> 관 리 법

이끼로 감싼 녹영은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이끼가 완전히 마르면 이끼를 적셔주는 것으로 관수를 대신한다. 나뭇잎을 붙인 리스들은 공중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놓아 두어야 썩지 않고 잘 알라 오래 감상할 수 있다.

*리스틀의 비율은 1:1.6:1로 하는 것이 황금비율이다.

Material



박스로 만든 리스틀



나뭇잎



미나토본



글루건



이끼



녹영

GARDEN & BOOK

유럽의 주택정원 II

저자 : 문현주



독일, 스위스의 '유럽의 주택정원 I'에 이어 프랑스의 주택 정원을 소개하는 '유럽의 주택정원 II'가 출간 되었다.

'유럽의 주택정원 I'에서는 유럽의 정원 역사와 오픈 가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덴 호수 주변의 독일, 스위스의 주택을 방문하여 12곳의 정원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정원 디자인과 시공을 함께 하는 정원 디자이너가 경험하고 있는 쇼 가든 3곳을 소개하였다.



이번에 출간되는 '유럽의 주택정원 II'는 프랑스의 주택 정원과 우수 정원을 다루었다.

프랑스는 정원 만이아와 정원 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오픈 가든 행사를 하고 있다. 정원 만이아들은 내 이웃의 아름다운 정원을 탐방하여 정원에 대한 인목을 넓히고 식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원 탐방의 기회를 민간단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다. 프랑스 서부의 노르망디 지역은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로 온난하고 연중 고온 강수량으로 정원을 가꾸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초여름 6월에 이곳의 주택 정원을 찾아간다. 정원 주인들은 정원을 잘 관리하고 있고 정원 가꾸기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객들과 함께 그 열정을 기꺼이 공유하고 즐긴다.

코당탱(Cotentin) 해변의 개인 주택 11곳의 정원을 둘러본다.

또한 프랑스는 2004년부터 국가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우수 정원(Remarquable Jardin)으로 지정하였다. 역사 정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개인 정원을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리로 보존을 돕는다. 이는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정원을 제시하고 프랑스의 정원 문화를 만들어 가게하고 있다. 유명한 거투르드 지킬이 디자인한 정원도 있고 크리스티안 디오르의 정원도 있다.

노르망디(Normandie) 주의 4정원과 상프르(Centre) 주의 2정원을 둘러본다.



Le jardin qui est fini est mort.
<The Garden is finished is dead.>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정원이 아니다.

- H.E. Bates -



그도 많이 배우고 있는 정원
정원 소식이 전해온 정원



저자 : 문현주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인왕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선템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선템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세요!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그린퍼미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슬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월동자재 오픈기념 SALE

조이가든센터(구, 미림가든센터) 확장이전 OPEN 기념 SALE!

월동상품 10% ~ 최대 20%
(일부품목 제외)



"미림가든센터" 의 새이름
조이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상하별1로 70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오아시스(박스정원)

출원번호 10-2014-0137480

물관리 NO!

옥상, 건물 앞, 교통섬, 베란다, 도로변 등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오아시스 특징

1. 건물앞, 교통섬, 도로변, 공원 등지의 화단조성이 힘든 곳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암석가든형, 혼합가든형, 텃밭가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원하는대로 선택가능합니다.
3. 설치가 편리하고 교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저수판이 있어 1회 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격

*부가세 별도

구분	규격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오아시스(박스정원)의 유형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